

KTO 북한관광동향

KTO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Tourism Trend

2011 • 여름호

KTO 북한관광동향

2011 · 여름호

발행일 2011년 6월 30일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
발행인 이 참

전화 02) 729-9645
팩스 02) 729-9644
홈페이지 <http://www.visitkorea.or.kr>
이메일 kntoman@mail.knto.or.kr

인쇄처 웃고문화사(Tel.2267-3956)

목 차

>>> 북한관광 주요동향(3.31~6.30) _1

⋮ 부 록 _9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_99

북한관광 주요동향 (2011. 3. 31 ~ 6. 30)

1. 北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홍보전' [3. 31]
2. “北, 천안함 사과요구는 절대 수용 못 해” [4. 5]
3. 北 “현대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4. 9]
4. 현대아산 “北 '금강산 독점권 취소' 철회해야” [4. 9]
5. 北 “외국인 금강산 관광객 직접유치” [4. 10]
6. 北, “언제든 남북정상회담 가능” [4. 11]
7. 中 전문가 “北, 금강산에서 카지노 사업 추진” [4. 12]
8. 남북 백두산 전문가들 6월 현지 공동답사 합의 [4. 13]
9. '中훈춘-北나선-러' 잇는 '3국관광' 개시 [4. 13]
10. 北, 현대아산 금강산 독점사업권 취소 파장 [4. 14]
11. 北 “관광 독점권 취소, 남북합의·국제관례 부합” [4. 16]
12. “백두산 화산회의, 당국 간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 [4. 17]
13. “남북 연계관광 실현땀 세계 최고 관광지” [4. 21]
14. 中, 투먼-청진-부산 해상항로 개통 추진 [4. 21]
15. “北 개성공단 제품, 한미FTA와 무관” [4. 22]
16. 캠프스키, 금강산관광 진출 [4. 24]
17. EU, 北고려항공에 6년째 취항금지 [4. 26]
18. 北, 금강산관광 독자 추진 `한시적 조치' 시사(종합) [4. 26]
19. 캠프스키 호텔 그룹, “북한과 투자합의 현재는 없다” [4. 27]
20. 북한 주민, 올 1분기 2만8천 명 중국 방문 [4. 27]
21. 정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안 [4. 27]
22. 中 관광객, 비자 없이 北·러 여행 [4. 27]
23. 카터 “北, 한국과 핵문제 논의의사 있다 했다” [4. 28]
24. “북한인 미국방문 급증...민간교류는 활발” [4. 29]
25. 北 전문가 60% “南北 정상 연내 만나야” [5. 3]

26. 북 '나선특구' 중국에 활짝 열다 [5. 4]
27. 조계종 방북단 금강산 방문...구호품 전달 [5. 4]
28. 1분기 北·中교역 2배로 급증...10억 달러 육박 [5. 4]
29. 北 "中관광단, 두만강·나선 등 둘러봐" [5. 4]
30. 유럽기업투자단, 오는 14일 평양방문 [5. 6]
31. 中릉징-北칠보산 관광코스 개통 [5. 6]
32. 中단둥, 1년간 10만 명 北관광 [5. 6]
33. 李대통령, 김정일 핵안보정상회의 초청 [5. 10]
34. 중국인 北 관광 활기..."1년 동안 10만 명 찾아" [5. 10]
35. 남북교역 중단 후 北인력 中에 대거 유입 [5. 11]
36. 北 '이 대통령 베를린 제안' 거부 [5. 11]
37. 중, 10개월만에 금강산 관광 재개 [5. 11]
38. 다국적 기업, 북한 투자 방문 잇따라 [5. 16]
39. <김정일訪中> 전문가 "북중 경제협력 논의"(종합) [5. 20]
40. "北나선·황금평, 시장원리 산업벨트로 육성" [5. 23]
41. 캠프스키 그룹, 北 원산에 공항·호텔 착공 [5. 23]
42. 북, 중국의존 더 심해지나 [5. 23]
43. "5.24조치로 대북 업체 손실 평균 38억원" [5. 24]
44. 김정일 "6자회담 조기 재개해야"(종합2보) [5. 26]
45. "천안함사건과 남북경협 분리대응해야" [5. 29]
46. 北 "南정부와 상종 안 해, 동해 군통신선 차단" [5. 30]
47. 亞·유럽여행사, 내년 북한 관광객 모집 [6. 1]
48. 북 "남쪽이 정상회담 제안" 비밀접촉 공개 [6. 1]
49. 정부 "北 진의 왜곡한 일방주장으로 매우 유감"(종합) [6. 1]
50. 北, 현대 독점권 제한하는 '금강산특구법' 제정 [6. 2]
51. 北 고려항공 "주 1회 쿠웨이트 취항예정" [6. 4]

52. 北, 태권도시범단 순회공연차 미국 방문 [6. 4]
53. [뉴스 파일]중국인 '차 몰고 나선여행' 9일 시작 [6. 6]
54. 킹 특사 “北과 이산가족 상봉 논의했다” [6. 8]
55. 북·중 합작개발 황금평 대규모 착공식 [6. 8]
56. 北 아리랑공연 8월1일 개막... 관광객 모집 한창 [6. 9]
57. 北 “남북대화 논의할 여지없어” [6. 9]
58. “훈춘-나선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 열려”(종합) [6. 10]
59. 中, 나진항 통해 ‘150년 숙원 동해길’ 뚫다 [6. 10]
60. 中신화, 북한관광 상세 소개 눈길 [6. 10]
61. 북·중 “나선을 세계적 특구로” [6. 10]
62. 中훈춘, 나진 이어 자루비노 항로도 개통 [6. 12]
63. 北 고려항공 평양~상하이 직항노선 7월 개통 [6. 15]
64. 北 “금강산 부동산 정리... 30일까지 오라” [6. 18]
65. “北 특구, 걸잡을 수 없는 변화 부를 수도” [6. 18]
66. 나선특별시, 한반도 동북지역 포트로더데일로 개발...개발계획 단독입수 [6. 22]
67. “남북경협 제재 따른 피해 국가 배상의무” [6. 23]
68. '금강산 재산정리' 北위협에 대응책 부심 [6. 24]
69. 새로 열린 北나선특구 육로 관광... 체험객이 전한 ‘北-中경협 1번지’ 실상 [6. 27]
70. `나선·황금평 개발안' 개성공단보다 진일보 [6. 27]
71. '재산정리' 北위협에 민관 29일 금강산 방북 [6. 27]
72. 북측 금강산 재개 요구...” 거부 땀 임대·재산정리 돌입” [6. 28]
73. 금강산 재산 정리 12명 방북 [6. 29]
74. 금강산 방북단, 북한과 아무런 논의도 못해 (종합) [6. 29]
75. 北 '금강산 협의' 무산책임 남측에 전가 [6. 29]
76. 최문순 “금강산관광 우선 재개하자” [6. 30]
77. 북 “임가공업체도 정리하겠다” [6. 30]

1. 北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홍보전' [3. 31]

■ “나선에 특혜관세”...잇단 투자 권유

- 심각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대외용 공식 매체를 동원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끄.
- 북한 당국은 특히 나선 경제특구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나선 경제 무역지대법에 의하면 관세면제 대상에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자들이 포함된다”며 “외국투자기업들이 생산과 경영활동, 지대건설을 위해 들어오는 물자들, 지대 안에서 생산한 수출품, 그리고 이곳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무역화물도 속한다”도 밝힘.
- 중앙통신은 “일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들의 경제특구들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나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협조 관계자라는 최광남씨를 인용해 “나선의 특혜관세제도가 외국투자자들의 기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강조함.
- 중앙통신은 하루 전인 29일에는 황철남 나선 인민위 부위원장의 언급을 빌려 “나선이 동북아의 중요한 국제화물 중계지와 수출품가공지, 국제적 금융 및 관광지로 꾸려질 것”이라고 선전하기도 함.
- 이달 1일에도 통신은 “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함. 외국인투자법이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나선 경제무역지대의 특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를 촉구함.
- 북한 매체가 이처럼 외국인 투자를 권유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는 것은 이례적임. 북한당국이 나선 특구를 국제적 무역기지 및 수출가공지역으로 키우려고 '홍보전'에 나선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최근 나선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 등과 잇따라 투자의향서가 체

결되면서 정세와 상관없이 투자를 이행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

- 중국은 올해 1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나진항을 거쳐 남쪽 지역으로 운송했고, 작년 말에는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나선지구의 부두·도로·정유시설을 합작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나선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자료출처 : 2011-03-31 연합뉴스)

2. “北, 천안함 사과요구는 절대 수용 못 해” [4. 5]

■ 박한식 교수 방북 후 북한 분위기 설명

-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남북문제와 관련해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미국 조지아대(UGA) 박한식 교수가 5일 밝힘.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박 교수는 지난 3월29일 부터 5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뒤 베이징(北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힘.
- 박 교수는 “북한은 천안함 공격 등과 관련해 우리가 저지른 행동이 아닌데 사과할 수 없으며, 이는 백년, 천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라면서 “남한이 천안함 문제에 대한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함.
- 박 교수는 이어 미국 등 서방 연합군의 리비아 공격과 관련, “북한 인사들은 리비아가 핵개발 정책을 유지했으면 미국이 공격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으며, 핵개발 정책을 견지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함.
- 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

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 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구상에 강권과 전횡이 존재하는 한 자기 힘이 있어야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는 진리가 다시금 입증됐다"고 밝힘.

- 박 교수는 또 "북한은 지금도 북-미 대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재개를 희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함.
- 박 교수는 UGA 석좌교수로, 국제문제연구소(GLOBIS) 소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 사정에 정통한 재미 한인 정치학자임.

(자료출처 : 2011-04-05 연합뉴스)

3. 北 “현대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4. 9]

■ 아태평화위 담화 발표...“北지역 통한 관광은 해외에 위임 가능”

■ “南측 통한 관광만 계속 현대가 맡아”

- 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며 “우리는 현대 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현대 측에 통고하고 그에 대한 공식문건을 정식 넘겨줬다”고 말함.

-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인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임. 중국 여행사들은 작년 5월 북한 단체관광을 시작하면서 외금강 관광을 포함한 상품을 판매하기도 함.
- 대변인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공화국의 해당기관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법률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기했다”며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해당한 국가적 조치는 곧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대변인은 “우리는 현대 측과의 신의를 지켜 현대를 비롯한 남측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금강산 관광을 희망하는 남녘 동포들의 염원까지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서 합의를 보기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성있게 노력했다”며 “그러나 현대 측과의 협상도 남조선 당국의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끝내 결실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함.
- 금강산 관광은 2008년 8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됐으며, 북한은 천안함 사건 후인 작년 4월 말 현대아산의 외금강 주요 시설에 대한 동결 조치를 집행함.

(자료출처 : 2011-04-09 연합뉴스)

4. 현대아산 “北 '금강산 독점권 취소' 철회해야” [4. 9]

- 현대아산은 9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독점권 취소)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힘.
- 현대아산은 이날 회사입장을 담은 자료를 내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북측과 맺은 모든 합의는 어느 일방의 통보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함.
-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관광의 재개만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함.

- 현대아산은 또 “금강산 관광이 하루 속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임.
-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8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사실상 중단됐으며, 북한은 천안함 사건 후인 작년 4월 말 현대아산의 외금강 주요 시설에 대한 동결조치를 집행한 바 있음.

(자료출처 : 2011-04-09 매일경제)

5. 北 “외국인 금강산 관광객 직접유치” [4. 10]

- 현대아산에 대해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 북한은 자체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임.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측을 추가로 압박할지 여부도 주목됨.
- 지난 8일 북한은 현대아산의 독점권 효력을 취소한다는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외국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서 한다”고 부연 설명함.
-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남한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진행돼 왔음.
- 하지만 2008년 8월 ‘고(故)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 조치로 금강산 관광은 ‘올스톱’된 상태임.
- 결국 이날 북한 대변인 담화는 자체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금강산 관광만이라도 일단 재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북한에 금강산 관광은 주요 외화벌이 통로 중 하나임.
- 이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님. 지난해에도 북한은 중국인 단체 금강산 관광을 추진한 바 있음. 작년 말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북한이 2011년 미국인들에게 미국 여행사를 통한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음.

- 또 이번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우리 정부는 박왕자 씨 사건 이후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을 관광 재개 조건으로 걸고 있음. 여기에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까지 겹쳐 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일단 정부로선 북한이 외국 관광객 유치에 직접 나서는지 등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할 것으로 보임. 일단 작년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했을 때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 국가여유국에 공한을 보내는 방안이 있음.
-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 관광객이 북한 지역을 단체관광할 때 금강산 관광지구인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음.
- 북측에 항의성 전통문을 보내거나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 형태로 정부 견해를 표명하는 방안도 가능함.
-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를 무시하고 현대아산을 통하지 않은 금강산 관광에 응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함.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방침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덧붙임.

(자료출처 : 2011-04-10 매일경제)

6. 北, “언제든 남북정상회담 가능” [4. 11]

- 북한 대남 담당 고위 당국자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언제든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박한식 조지아 대 석좌교수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은 언제든 가능하며, 여기에는 정상 간 만남도 포함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함.
- 아울러 박 교수는 “북한은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해 의제를 이미 준비했거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함.
-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박 교수는 “북한 당국자들은 천 년이 지나도 만 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남측이 천안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함. 그는 “북한 (노동당) 당국자들은 군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군부는 확실한 대화를 하든지 전쟁 같은 전쟁을 하든 지의 양자택일 입장인 듯했다”고 말함.
- 또 박 교수는 북·미 관계에 대해 “조만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천안함에 얽매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중앙일보에 말함.

(자료출처 : 2011-04-11 조선일보)

7. 中 전문가 “北, 금강산에서 카지노 사업 추진” [4. 12]

■ “카지노 사업은 중국 관광객을 불러들일 좋은 방안”

- 북한이 현대그룹과 맺은 금강산 관광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강산에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의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 대표들이 주장함.
- 중국 심양에서 북한 관광전문 여행사를 경영하는 오 모 씨는 11일 “북한이 남한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 아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에서 카지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말함.

- 오 씨는 “수개월 전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북한의 고위층으로 부터 현 대그룹과 맺은 금강산 관광 독점계약을 파기할 것을 이야기를 듣고 이미 예상했었다”고 밝힘.
- 오 씨는 “북한 당국이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또 여행사 입장에서 북한 내륙 깊숙이 위치한 금강산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사업은 중국 관광객을 불러들일 좋은 방안”이라고 말함.
- 중국 단동의 여행사 대표 주 모 씨도 “아직 북측으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듣지 못했지만, 카지노 사업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며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중국 사업자들의 투자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그러나 이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카지노사업에 대해 중국 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북한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 북한 당국은 2002년 신의주 개방정책으로 '신의주 특별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시장에 중국인인 양빈을 영입했지만, 중국 당국에서 그를 탈세혐의로 전격 구속하면서 북한당국의 계획이 무산됐었음.
-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중국에서는 북한이 신의주 행정 구역에 대규모 카지노 개장을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음.
- 또, 북한의 나선시 비파도에 홍콩의 영황(英皇;Emperor)그룹이 카지노 관광을 겨냥해 투자한 '엠퍼러 오락호텔(EMPEROR HOTEL&CASINO)'도 중국 당국의 규제로 한동안 중국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바 있음.
- 그러나 나선항 부두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중국인들의 출입을 일부 묵인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언제 또다시 중국인 출입금지 조치를 재개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말함.

(자료출처 : 2011-04-12 노컷뉴스)

8. 남북 백두산 전문가들 6월 현지 공동답사 합의 [4. 13]

- 남북 화산 전문가들이 화산 폭발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6월 중순 백두산 공동답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
- 남북은 12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제2차 전문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함. 이에 앞서 전문가 학술회의를 5월 초 평양 등지에서 열기로 했음. 세부 일정은 후속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15분부터 시작됨. 우리 측에서는 단장인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등 4명이, 북측에서는 윤영근 지진국 산하 화산연구소 부소장(지진국 부국장 겸임) 등 3명이 참석함.
- 1차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북측 참석자에게서 백두산 화산 폭발 관련 정보를 듣지 못했고, 남북 간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음. 하지만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남북은 오후 7시를 넘긴 시간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냄. 통일부는 "남북은 합의문에서 백두산 화산 분출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합의 사실을 밝힘.
- 남북 전문가회의는 북측이 지난달 17일 지진국장 명의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우리 측 기상청장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면서 시작됨. 사실상 북한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앞서 민간인 전문가 간 협의를 먼저 진행하자고 해 전문가 협의회가 먼저 열림.
- 남북 전문가 회의에서 공동연구를 합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당국 간 협의회가 있을지도 주목됨.
- 정부 당국자는 "당국 간 협의회나 승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국 간 접촉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자료출처 : 2011-04-13 매일경제)

9. '中훈춘-北나선-러' 잇는 '3국관광' 개시 [4. 13]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북한의 나선, 러시아 극동을 잇는 '3국 관광'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장춘일보(長春日報)가 13일 보도함.
- 신문은 3국 관광 노선이 중국 국가여유국의 승인을 얻어 이달부터 관광객 모집에 나선다고 밝힘.
- 중국의 산장(三疆)국제여행사와 러시아 극동국제연합부, 북한의 나선관광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이 관광 노선은 훈춘에서 출발, 러시아 슬라반카와 하산, 북한의 두만강시와 나선시를 둘러보게 됨.
- 훈춘에서 슬라반카를 거쳐 북-러간 철도를 이용, 나선을 둘러보고 훈춘으로 돌아오거나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에서 나선에 이어 러시아 하산을 둘러보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2개 코스로 운영됨.
- 3국의 여행사들은 지난해 초 현지 답사를 통해 통관 절차와 관광 일정, 노선 등을 점검했으며 같은 해 9월 이 관광 노선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 북한은 이 노선 이외에도 북한 관광 노선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동북지구 관광업 발전 계획'을 통해 지린성 바이산(白山)-창바이(長白)현-북한 혜산 노선과 옌지(延吉)-훈춘-광촨(防川)-나진.청진 관광노선을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밝힘.
- 연변자치주도 훈춘에서 나진을 거쳐 평양과 판문점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북한관광 노선 개발을 위해 북한과 협의 중임.
- 지금까지 중국의 북한관광 노선은 단둥에서 신의주를 거쳐 평양에 들어가는 노선과 연변에서 산허(三舍)와 청진, 칠보산을 둘러보는 코스, 백두산-삼지연-평양을 잇는 코스 등에 불과함.

(자료출처 : 2011-04-13 연합뉴스)

10. 北, 현대아산 금강산 독점사업권 취소 파장 [4. 14]

■ 고성 화진포 개발사업은 어찌나

■ 중단된 초도리 관광호텔 계획, 더 미뤄질 듯

-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강원 고성군 화진포 개발사업에도 불뚱이 튀고 있음. 13일 고성군과 현대아산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204억 원을 들여 현내면 초도리 일대 1만689m²(약 3233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113실 규모의 화진포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현대아산은 호텔이 들어설 화진포휴게소 맞은편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7월 사업 계획 승인을 마쳤음. 그러나 현재까지 전혀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임. 이는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민간업체 부동산마저 동결조치 됐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마저 취소돼 화진포 개발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됨.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호텔 신축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임.
- 최정석 고성군 관광개발담당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지역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는데 관광 개발 사업마저 진척이 안 돼 아쉽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 희망은 줄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현대아산 측이 사업 추진에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말함. 이에 대해 현대아산 관계자는 “화진포 관광호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호텔의 건립 목적이 금강산 관광객 숙박 기능도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및 남북 관계를 지켜보면서 사업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함.

(자료출처 : 2011-04-14 동아일보)

11. 北 “관광 독점권 취소, 남북합의·국제관계 부합” [4. 16]

- 북한은 16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 취소조치에 대해 “사업 당사자 간 및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공화국법과 국제법, 국제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남조선 당국은 금강산관광 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상보에서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봐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일방은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힘.
- 상보는 이어 “현대 측과 맺은 합의서 제8조 2항에는 양측이 어느 일방이 합의서 및 부속문서에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일방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현대 측과의 이 합의 이행마저 방해해 부득불 합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함.
-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파탄됐음에도 현대 측에 남측지역 관광을 계속 일임한 것은 현대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신의와 특혜의 표시로 앞으로도 현대 측과의 신의를 귀중히 여기고 금강산관광 산업을 손잡고 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상보는 이어 “우리는 현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지난 근 3년 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참고 또 참아왔다”며 “남조선 당국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함.
- 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은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자료출처 : 2011-04-16 연합뉴스)

12. “백두산 화산회의, 당국 간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4. 17]

■ 통일부 고위당국자 밝혀

-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5일 “백두산 화산 전문가 회의가 남북 당국간 협의

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함.

- 이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전문가 회의는 순수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담이지만 당국의 양해 아래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런 회의를 통해 토대가 잘 쌓여서 이야기가 돼 간다면 좀더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함.
- 그러나 이 당국자는 “지금은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문제에 천착할 때로 당국간 회담으로 가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임.

(자료출처 : 2011-04-17 한겨레)

13. “남북 연계관광 실현면 세계 최고 관광지” [4. 21]

■ 관광공 센터장 “남북이 상생의 길 찾아야”

- 박병직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장은 21일 “남북지역을 한번에 여행할 수 있는 남북연계 관광코스 개발로 공동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함.
- 박 센터장은 이날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제57회 조차간 담회에서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지만 남북 당국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박 센터장은 “남북연계관광은 통일·문화·생태 관광으로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섬나라’로 외국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과 외화벌이가 필요한 북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박 센터장은 “관광은 평화로 가는 패스포트(passport)”라며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분야를 비롯해 사회·문화·관광·체육 분야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늘려 북한 주민과 접촉 기회를 늘리고 북한 변화의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함.

- 그는 최근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한 것에 대해 “남측 사업권은 여전히 현대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취소라기보다는 제한조치라고 본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3년간 강경정책으로 대북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획득하고 한편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의도일 것”이라고 분석함.
- 차동영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지사장은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은 한국인으로 드넓은 땅에 큰 산이 많은 중국인에게는 금강산이 크게 매력있는 관광지는 아니다”며 “카지노를 개발하면 관광객이 늘 수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해외 카지노를 막는 입장이어서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자료출처 : 2011-04-21 연합뉴스)

14. 中, 투먼-청진-부산 해상항로 개통 추진 [4. 21]

- 중국이 두만강 상류의 북한 접경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에서 북한 청진을 거쳐 부산에 이르는 컨테이너 해상항로 개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길림일보(吉林日報)가 21일 보도함.
- 신문은 연변자치주가 옌지(延吉)-룽징(龍井)-투먼(圖們)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옌룽투 일체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해상항로 개통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투먼-북한 남양-청진-부산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운송 항로 개통이 한국 통일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함. 북한과 중국은 이미 이 항로 개통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나진항에 이어 북한으로부터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청진항을 이용한 동해 해상 항로 개통을 추진 중임. 이를 위해 지난해 투먼-남양-청진 구간 노후 철도 보수에 나섰으며 연내에 이 해상 항로를 정식 개통할 계획임.
- 중국이 청진항을 통해 두만강 유역의 지하자원과 곡물을 자국의 남방지역으로 운송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천안함 사태 이후 교역이 전면 중단된 남한과 북한을 잇는 청진-부산 항로 개척까지 추진하고 나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중국은 또 대북 교역 창구인 룡징의 썬허(三合)와 카이산툰(開山屯)통상구에 북한을 잇는 새로운 다리를 12.5기간(제1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11-2015년) 기간에 건설키로 했으며 투먼과 북한의 남양·두만강시를 거쳐 러시아 극동의 하싼을 연결하는 국제철도 운송 재개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이 나진과 청진항에 이어 북한과 러시아 교역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운송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중국은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삼으려는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이 2009년 11월 국무원 승인을 얻어 본격 추진된 것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에 가로막힌 두만강 유역에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노선 확보에 큰 공을 들이고 있음.

(자료출처 : 2011-04-21 연합뉴스)

15. “北 개성공단 제품, 한미FTA와 무관” [4. 22]

■ 美헤리티지재단, “북한산 수입 통제中”

-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북한산 제품’이 수입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일각의 우려와 관련,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브라이언 라일리 연구원은 이날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일부 비관론자들이 개성공단 제품의 수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하찮은 주제(non-issue)’”라며 이같이 주장함.
- 무역정책 담당인 라일리 연구원은 “한미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정부는 개성을 비롯한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 말함.
- 특히 그는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 가능성과 관련,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와 현재를 비교하는 도표를 통해 설명함.

- 라일리 연구원은 우선 북한산 제품의 경우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 (OFAC)의 허가 없이는 직접적이든 제3국을 통해서든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면서 이는 한미FTA가 발효됐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힘.
- 또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물량도 미국의 관련법과 세관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면서 한.미 FTA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함.
- 그는 이밖에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북한산 수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규정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같이 취급하는 규정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 앞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의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달 16일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 FTA 협정 내용에 북한산 제품을 제외한다는 언급이 없다”면서 “이 협정이 북한을 이롭게 해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일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바꿀 의도가 없다”면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에 분명히 했다”고 밝힘.

(자료출처 : 2011-04-22 연합뉴스)

16. 캠프스키, 금강산관광 진출 [4. 24]

■ 조선합영투자위와 금강산에 호텔 건설 합의

- 세계적인 호텔 그룹인 캠프스키(Kempinski)가 북측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금강산 관광특구 진출에 합의하고 호텔 건설 등에 나섬.

- 월간 <민족21>은 5월호 단독보도에서 일본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측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와 캠프스키그룹이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에 대해 합의했다”며 “캠프스키그룹은 원산공항을 현대화하며, 원산에 호텔을 지어 그 일대를 휴양지로 개발하고, 북측은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도로를 현대화할 예정”이라고 전함.
- 외국 관광객들이 직항기 편으로 원산공항에 도착해 캠프스키호텔에 투숙한 후 원산-금강산 도로를 타고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된다는 것.
- 캠프스키그룹은 주로 5성급 이상의 고급 호텔 및 리조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재 인도.중국 등 아시아권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주요 주주는 태국 왕실 산하 투자그룹과 바레인 왕실 산하 투자기관 등 안정적 투자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캠프스키그룹은 자산규모가 130억 유로로 16조원이 넘고, 연간 매출액은 20-30억 유로에 이르며, 세계호텔연맹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 호텔 및 리조트 사업 분야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원산에 캠프스키호텔이 완공될 경우 원산지역은 금강산특구와 연계돼 세계적인 휴양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외국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서 한다”고 밝힌 것도 캠프스키그룹의 금강산관광 투자유치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임.
- 북 당국은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캠프스키에게 남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현대에게 맡길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소식통은 “캠프스키그룹의 금강산 투자유치는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리수영 위원장이 장기간 공을 들인 극비프로젝트로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함.
- 조선합영투자위원회는 지난해 7월 8일 북 내각 전원회의에서 비준.결성되

있으며, 외자 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내각 직속의 중앙지도기관으로, 30년간 스위스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초 귀임한 리수영(리철) 전 제네바 북 대표부 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산하에 13개 국(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출처 : 2011-04-24 통일뉴스)

17. EU, 北고려항공에 6년째 취항금지 [4. 26]

■ “국제안전기준에 미달”

- 유럽연합(EU)이 북한 고려항공을 국제 항공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6년 연속 ‘취항금지’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함.
- 방송은 “EU가 최근 발표한 ‘취항 제재 항공사 명단’에 북한의 고려항공이 6년째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고려항공은 지난해 ‘제한적 취항 허가’를 받은 러시아산 새 항공기 2대(Tupolev-204) 이외의 항공기로는 EU 국가로 취항할 수 없다”고 밝힘.
- EU 관계자는 RFA에 “올해 들어 고려항공 측이 유럽 항공안전위원회에 안전도 개선 조치를 설명하며 취항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고려항공의 항공기들은 아직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항공기들이 EU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취항제재 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함.
- 고려항공은 현재 보유한 항공기 20여대 중 10여대를 운항 중인데 최근 구입한 러시아 항공기 2대 외에는 모두 1960~70년대에 제작된 옛 소련제 항공기여서 상당히 낡은 상태임.
- 이번 ‘취항금지 명단’에 포함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콩고, 앙골라, 베냉 등 21개국임.

(자료출처 : 2011-04-26 연합뉴스)

18. 北, 금강산관광 독자 추진 `한시적 조치' 시사(종합) [4. 26]

■ 리종혁 “북측 통한 관광은 南측 재개할 때까지”

-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시설을 비워놓으면 다 망가져 금강산 관광을 우리 쪽에서라도 시작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물론 남측이 시작할 때까지다”라고 밝힘.
- 이는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남측이 재개할 때까지 북측의 한시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됨.
- 정기열 중국 칭화(淸華)대 초빙교수는 지난 13일 평양에서 면담한 리 부위원장이 “남측의 금강산 관광은 앞으로도 현대아산이 맡아서 할 것이고 북측(을 통한 관광)에 관한 한 우리가 하게 될 것임. 관련된 법적, 행정적 조치를 곧 취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26일 전함.
- 정 교수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정주영 명예회장 사망 10주년을 기념해 (김정일) 장군님이 친서도 전할 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남측) 당국이 승인하지 않아 못 만났다”며 “물론 현대 측은 만나고 싶어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현대아산은 “북측이 (정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친서를 현 회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는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 회장의 방북 신청이 접수된 게 없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달 18일 아태평화위 관계자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모 친서를 전했고 19일에는 김양건 아태평화위원회 위원장(통일전선부장 겸임) 명의의 추모 화환을 현대아산 개성사업소를 통해 전달함.
- 리 부위원장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오랫동안 적대관계가 지속해 있는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신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함.

- 또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북과 남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 우리는 어떻게든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자료출처 : 2011-04-26 연합뉴스)

19. 켐핀스키 호텔 그룹, “북한과 투자합의 현재는 없다” [4. 27]

■ “켄핀스키는 세계 어느 곳에라도 새로운 사업 논의할 용의는 있어”

-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 그룹인 ‘켄핀스키’는 현재로서는 북한과 대북 투자에 관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힘.
- 켐핀스키 호텔 리조트 그룹의 브리지트 홀 홍보국장은 이 회사가 북한의 원산을 거점으로 외국인들의 금강산 관광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한 “현재로서는 북한과 대북 투자에 관해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함.
- 홀 국장은 그러나 “국제적인 회사로서 켐핀스키는 세계 어느 곳에라도 새로운 사업을 논의할 용의는 있다”고 전함.
-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한미경제연구소의 그레그 스칼라튜 연구원은 지난 25일 “이러한 보도는 한국 정부와 현대아산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분석함.
- 스칼라튜 연구원은 “세계적인 업체인 켐핀스키가 투자를 결정하려면 충분한 타당성 연구와 향후 수요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보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한편, 월간 ‘민족21’은 5월호에 일본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측의 조선 합영투자위원회와 켐핀스키그룹이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에 합의해 원산공항을 현대화하고 금강산 특구에 호텔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전함.

(자료출처 : 2011-04-27 노컷뉴스)

20. 북한 주민, 올 1분기 2만8천 명 중국 방문 [4. 27]

■ “취업이 1만 4천6백 명으로 전체의 절반 넘어”

-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중국을 공식 방문한 북한 주민이 2만8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소리 방송은 27일 “중국의 관광정책 담당 부처인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외국인 입국현황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한 북한 주민은 2만8천6백명”이라고 전함.
-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2만1천200명 보다 35%인 7천4백 명이 늘어났으며, 방문 목적과 연령, 성별, 그리고 이동 수단 등에서는 예년과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임.
- 방문 목적 별로는, 중국의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기 위한 사람이 1만4천6백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음.
- 다음은 회의 참석이나 사업을 위해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이 6천 명, 관광이 7백 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친척이나 친구 방문은 1백 명 이하에 그쳤고, 기타 목적이 7천 3백 명이었음.
- 연령별로는 45살에서 64살 사이가 1만3천8백 명으로 가장 많았고, 25살에서 44살 사이가 1만 2천4백명을 차지함.
- 성별로는 남성이 2만 5천3백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3,300명으로 나타남.
-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선박이 11,800명, 비행기 6,700명, 자동차 4,800명, 기차 4,100명, 도보 1,100명 순으로 집계됨.
-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탈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

한 북한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음.

- 한편, 올 1분기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3백58만6천8백 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한국인이 95만2천8백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일본인으로 81만 5천명을 기록함.

(자료출처 : 2011-04-27 노컷뉴스)

21. 정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안 [4. 27]

- 정부가 27일 갑자기 북측에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한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정부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함.
- 북측이 납치를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하는 귀순자 4명은 물론 자유의사에 반해 북한 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자유의사를 확인하자는 내용임.
- 자유의사에 반해 억류된 우리 국민은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군포로와 517명으로 집계된 전후 납북자 등을 의미함.
- 주목되는 것은 귀순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임.
- 2월5일 서해에 표류하다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27명은 지난달 말 송환됐으며, 나머지 4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함.
- 이에 대해 북측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22일 잇따라 전통문을 보내 남측에 의한 납치와 귀순공작을 주장하며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함.
- 정부는 그러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은 불필요하다”며 북측의 제의를 거부해왔음.

- 이 같은 입장을 취해오던 정부가 이날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 확인과 함께 국군포로·납북자의 자유의사를 동시에 확인하자며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함.
- 북측이 주장하는 대면확인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북측의 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끌려가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함.
- 귀순자 송환 주장에 대해 북측이 가장 꺼려워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카드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분석임. 북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귀순자 송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맞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한편에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의 방북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음.
- 한반도 정세가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등 이른바 3단계 안 논의와 카터방북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 같은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방어적 공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임.
- 일각에서는 남북 간에 대화준비를 위한 모종의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음.
- 귀순자와 국군포로·납북자 자유의사 확인을 매개로 남북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대화주제가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첨예한 상황에서 남북 간 물밑 교감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없지 않음.

(자료출처 : 2011-04-27 매일경제)

22. 中 관광객, 비자 없이 北·러 여행 [4. 27]

■ 3국 무비자 관광 첫 합의

-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3국의 접경지역을 무비자로 순회하는 여행이 세 나라의 합의로 처음 실현됐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중국이 두만강변 개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3국 간 무비자 여행이 허용됨으로써 이들 지역의 경제협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 신화통신은 훈춘싼장(琿春三疆)국제여행사가 인솔하는 21명의 단체여행객이 지난 26일 지린성 창춘을 출발, 무비자로 러시아와 북한을 방문하고 다음달 4일 귀국한다고 전함. 여행단은 러시아의 슬라비안카, 블라디보스토크, 카산을 지난 뒤 두만강을 건너 북한 나선지구를 방문한 다음 훈춘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훈춘여행사 측은 매주 수요일에 3국 순회 무비자 여행이 실시된다고 확인하면서 신분증과 여권 복사본을 보내면 수속이 가능하다고 전함.
- 3국 무비자 여행은 작년 3월 훈춘시가 제안한 뒤 중국 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허가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이에 동의하면서 성사됨.

(자료출처 : 2011-04-27 한국경제)

23. 카터 “北, 한국과 핵문제 논의의사 있다 했다” [4. 28]

- 그동안 핵 문제를 미루고만 논의해온 북한이 우리 정부와 핵 문제를 직접 논의할 의사를 밝힘.
- 지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초청으로 2박3일간의 방북일

- 정을 마친 뒤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과거에는 핵 문제를 반드시 미국하고만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핵 문제든 다른 문제든 남한 정부와 직접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함.
- 카터 전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국이나 미국 또는 다른 6자회담 관련국들과 언제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건 전제조건 없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함. 또 “김 위원장은 한국의 지도자, 다시 말해 이명박 대통령과도 언제든지 만나 모든 주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말함.
 - 카터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머무르고 있던 초대소를 떠나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초대소로 돌아와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런 내용의 개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함. 초대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카터 방북단 일행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서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고, 김 위원장의 친서(written message)를 읽어줬다는 것임.
 -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정상회담 제안 뿐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함.
 - 카터 전 대통령은 이어 “향후 상황이 호전돼 이 같은 제안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들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 군부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민간인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나 그에 대해 사과하거나 자신들의 연관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전함.
 -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이 없다”고 전제하고 “남북 간의 안보와 핵 이슈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진전을 이루려면 모든 당사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융통성·성실성·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힘.
 -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카터 전 대통령은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해 대북

식량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군사적·정치적 이유와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식량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함.

(자료출처 : 2011-04-28 조선일보)

24. “북한인 미국방문 급증…민간교류는 활발” [4. 29]

-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을 방문한 북한 국적자가 작년 동기간 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이 방송은 미 국토안보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0월1일부터 6개월간 방미한 북한인은 총 129명으로 작년 동기의 59명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났다”며 “이들은 대부분 관광비자인 B1, B2나 미공인된 정부기관과 그 대표에게 주어지는 G3비자로 입국함. 방문목적은 관광, 학업, 투자 등이다”고 밝힘.
- 북한 국적자의 방미 증가는 북미관계 경색에도 양국 간 민간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줌.
- 지난 2월과 3월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주축으로 한 과학자 대표단과 북한 무역성 등의 국장급 인사로 구성된 경제대표단이 잇따라 방미했고 5월에는 태권도 대표단이 방미길에 오름.

(자료출처 : 2011-04-29 연합뉴스)

25. 北 전문가 60% “南北 정상 연내 만나야” [5. 3]

■ 현대경제연구 보고서

- 북한 전문가들의 60%는 올해 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한반도 평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문제 전문가 73명 중 60.2%가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함.

- 상반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은 12.3%였으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는 대답은 67.1%에 달했다. 40%는 의제와 관계없이 우선 만나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함.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북핵 등의 각종 현안을 한꺼번에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뜻”이라고 풀이함.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방북 제한 조치의 해제 및 개성공단 정상화,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제시됨. 사회·문화 분야에선 쌀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음.
-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분기 남북 긴장국면을 수치화한 ‘한반도 평화지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7.4포인트 오른 32.4를 기록함. 천안함 침몰 직전인 2010년 1분기의 29.9보다 높음. 2분기 기대지수 역시 1분기 36.5보다 다소 상승한 44.6을 나타내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과 중국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의 3단계 안에 동의한 데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미국의 대북 식량 재개 가능성 등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자료출처 : 2011-05-03 한국경제)

26. 북 ‘나선특구’ 중국에 활짝 열다 [5. 4]

■ 중국과 항만·공단 건설 MOU 체결…경협 급물살

■ 지린성 훈춘 맞닿은 원정~나선 도로 30일 착공식

- 중국이 북한 ‘나선 특구’의 문을 활짝 열고 태평양으로 진출한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를 내건 북한도 중국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있음.

- 오는 30일 북한 나선(나진·선봉)특별시에서 북·중 양국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중국 지린성 훈춘의 취안허와 맞닿아 있는 북한 원정과 나선을 잇는 도로 공사 착공식이 열린다고 지린성의 정부 관계자 등 소식통들이 밝힘. 이 사업을 준비중인 중국 쪽 관계자는 최근 <한겨레> 기자와 만나 “북-중 경협과 북한 개방을 전세계에 공표하는 자리”라며 “중국 중앙정부에서도 지도자급 등 수십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함.



- 원정~나선 도로 공사는 나선 개방과 대규모 북-중 경협의 신호탄이다. 두 나라를 경제적으로 묶는 대통로가 될 이 도로 착공식과 함께 중국의 나진항 개발, 나진항을 통한 대규모 석탄 수송도 본격화됨.
- 나선 도시개발계획은 중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작성했지만, 계획부터 투자 및 운영까지 모두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설계도’에 따라 진행됨. 현지 소식통들은 ‘중국과 북한이 이미 공동으로 나선특구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중국 쪽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됐다’고 전함. 나선 투자엔 창리, 상디관원, 이치자동차 등 중국의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다른 북-중 경협과 달리, 나선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은 중국과 북한 중앙정부가 나선 개발을 매개로 한 양국 경협을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임. 중국 정부 관계자는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북한에 가서 양해각서(MOU)를 맺고, 나선의 도로·항만·공업단지 건설에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기로 했다”며 “나선특구 개발과 맞물려 중국 쪽 훈춘을 경제특구로 승격시키는 정책 서류에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서명했다”고 말함.
- 북한도 중앙정부에 나선특별시를 직할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었고, 그동안 나선 개발의 성과를 내지 못한 옛 간부들을 경질하고 임경만 나선특별시 책임비서 등 젊은 간부들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한 것으로 전해짐.

- 중국 쪽 국경도시 훈춘에선 북한 쪽으로 돈과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함. 나선에서 일하게 될 중국인들을 위한 아파트 500채 공사가 3월 말 이미 시작됐다고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전함. 훈춘~나선 도로 공사는 중국이 자본과 노동력을 모두 투입하는데, 우선 필요한 500여명의 중국 노동자 상당수가 이미 북한으로부터 6개월 통행증을 받아 나선에 도착함.

(자료출처 : 2011-05-04 한겨레)

27. 조계종 방북단 금강산 방문…구호품 전달 [5. 4]

- 국내 최대 불교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 방북단이 부처님오신날(5월10일)을 앞두고 4일 오전 방북함.
-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방북단 10명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출발, 오전 11시10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갈 예정임.
- 방북단은 이날 정오에 금강산 온정각에서 어린이 구충제 10만정 등 구호물품을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에 전달하고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 조불련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함.
- 방북단은 당초 계획했던 남북공동법회는 정부 당국이 불허함에 따라 열지 않기로 했으며 신계사 대응전 등 법당을 참배할 예정임.
- 방북단은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육로로 귀환함.
- 조계종은 2000년대 들어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불련과 공동으로 봉축등을 달고 법회를 했으나 2008년 7월 발생한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과 지난해 천안함 사건 등으로 2009년과 2010년에는 공동 법회를 열지 못했음.

(자료출처 : 2011-05-04 연합뉴스)

28. 1분기 北·中교역 2배로 급증...10억 달러 육박 [5. 4]

-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액이 급증해 전년 동기의 배로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함.
- VOA는 한국무역협회가 중국해관통계를 종합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3월 북중 양국 교역액이 사상 최대인 9억7천200만 달러를 기록, 작년 1분기 4억8천6백만 달러의 배로 늘어났다고 전함.
- 1분기 북한의 수출액은 4억134만달러로 작년 동기(1억2천700만달러)보다 218%나 급증함. 북한의 대중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매월 100% 이상 급증세가 이어져왔음.
-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5억7천100만달러로 작년 동기(3억5천900만달러)보다 59%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무역수지는 1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이는 작년 동기의 무역적자(2억3천300만 달러)보다 28% 준 것임.

(자료출처 : 2011-05-04 연합뉴스)

29. 北 “中관광단, 두만강·나선 등 둘러봐” [5. 4]

- 중국인 관광단이 지난달 29~30일 북한의 두만강과 나선시 일대의 역사유적 및 관광지를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중앙통신은 “최근 중국관광단 성원들이 조선의 일부 지역을 참관했다”며 “이번 참관사업은 조선(북), 중국, 러시아 3국 율환선관광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힘.
- 통신은 “나진항을 비롯한 경제대상들도 참관했다”고 덧붙임.
- 신화통신은 지난달 27일 훈춘산장(琿春三疆)국제여행사가 인솔하는 21명의

단체여행객이 26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을 출발해 무비자로 러시아와 북한을 방문하고 4일 창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의 슬라비안카, 블라디보스토크, 카산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북한의 나선지구를 방문하는 일정의 이 여행상품은 북·중·러 3국이 모두 허가한 시범사업으로 곧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임.
- 훈춘산장국제여행사 측은 매주 수요일에 3국 순회 무비자 여행을 진행키로 함.

(자료출처 : 2011-05-04 연합뉴스)

30. 유럽기업투자단, 오는 14일 평양방문 [5. 6]

- 유럽의 기업인들이 평양 봄철상품전람회에 참가와 대북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가 밝힘.
-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 'GPI 컨설턴스'의 폴 치아 대표는 5일 "유럽의 섬유나 광업 등 업종별로 특화된 투자단들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평양 봄철상품전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폴 치아 대표는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독점개발권 취소가 유럽기업인의 대북투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참가기업수는 밝히지 않은 채 예년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단이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지난해 네덜란드에 5천 500만 유로 상당의 경유 증류액을 포함해 유럽연합에 1억 유로 가량을 수출했으며, 북한의 투자 정책이나 대북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예전에 비해 북한에서 사업하기가 수월해졌다"고 설명함.
- 한편,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보호하고 외국투자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

장하기 위한 원칙과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었음.

(자료출처 : 2011-05-06 노컷뉴스)

31. 中릉징-北칠보산 관광코스 개통 [5. 6]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에서 북한 칠보산을 다녀오는 관광코스가 신설됐다고 연변일보가 6일 보도함.
- 신문은 지난달 30일 룡징시에서 룡징-칠보산 관광코스 선발대 출정식이 열렸으며 이는 이 관광코스가 정식 개통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룡징에서 싰허(三合)통상구를 거쳐 북한의 명산으로 꼽히는 칠보산을 둘러보는 이 관광코스는 '변경(邊境)관광'으로 분류돼 비자 없이 통행증 발급만으로 여행할 수 있음.
- 칠보산 관광길이 열리면서 룡징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신문은 기대함.
- 북한 관광노선 다각화를 추진해온 연변주는 2008년부터 룡징-칠보산 관광코스 개통을 북한과 협의해왔음.
- 훈춘(琿春)에서 북한 나선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순회하는 3국 무비자 관광이 지난달 26일 첫선을 보인 데 이어 룡징-칠보산 관광이 개통됨에 따라 북-중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 전망임.
- 중국은 지난해 4월 북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4년 만에 해제,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을 전면 허용함.
- 이에 맞춰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3월 지린성 바이산(白山)-창바이(長白)현-북한 혜산 코스와 옌지(延吉)-훈춘(琿春)-광촨(防川)-나진·청진 코스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동북지구 관광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관광코스는 아직 개통되지 않았음.

-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철도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투먼에서 함경북도 남양을 거쳐 청진과 칠보산을 둘러보는 관광철도를 운행할 계획이다. 훈춘에서 나진을 거쳐 평양과 판문점을 둘러보는 장거리 북한관광 노선 개통도 추진되고 있음.

(자료출처 : 2011-05-06 연합뉴스)

32. 中단둥, 1년간 10만 명 北관광 [5. 6]

■ 中, 北단체관광 금지 해제로 활기

- 중국이 북한 단체관광을 재개한 지 1년 만에 신의주 접경인 단둥(丹東)에서 10만 명이 북한을 관광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북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난해 4월부터 단둥에서 북한 단체관광이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10만 명이 북한을 여행했다고 단둥에서 발행되는 압록강만보가 6일 보도함.
- 올해 들어서도 노동절(5월 1일) 연휴를 맞아 지난달 말부터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단둥 변방수비대는 출국 절차를 간소화해 북한에 가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현지 여행사들은 본격적인 행락철로 접어드는 이달부터 북한 단체관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하루 코스로 신의주 일대를 둘러보는 단둥의 북한 단체관광은 비자 없이 통행증을 발급받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다녀올 수 있음.
- 단둥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계기로 북-중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양국 당국이 문화·관광 교류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단둥에서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말함.

(자료출처 : 2011-05-06 연합뉴스)

33.李大統領, 김정일 핵안보정상회의 초청 [5. 10]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 정상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맞받았음.
-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다시 한번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내년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책임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국의 대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기 때문임. 김 위원장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으로 비핵화에 합의하면 북한이 기대하는 안전보장과 경제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랜드 바겐' 구상과 맥이 닿아 있음.
- '그랜드 바겐'은 이 대통령이 2009년 9월 미국에서 구상을 밝힌 후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를 벌였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고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를 다시 쟁점으로 부각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겠다는 의도임.
- 청와대 관계자는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북한이 염려하고 있는 안전보장, 경제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북한의 밝은 미래'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함. 다만 이 대통령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을 위해 내건 전제조건을 북한이 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자료출처 : 2011-05-10 매일경제)

34. 중국인 北 관광 활기…”1년 동안 10만 명 찾아” [5. 10]

■ “관광 절차 간소화, 무비자로 하루 일정 국경 관광 늘어”

-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지인 압록강 유역의 단동을 거쳐 북한을 관광한 중국인이 지난 1년 동안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소리방송은 9일 중국 ‘압록강만보’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북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난 해 4월부터 신의주와 접해 있는 단동에서 북한을 여행한 사람이 지난 달까지 10만 명에 달했다”고 전함.
- “이들 중국 관광객들은 신의주 등 북한 접경 지역을 둘러보는 이른바 변경 관광과 단동에서 열차 편으로 압록강을 건너 일주일 동안 신의주와 평양, 개성, 판문점, 묘향산 등지를 둘러보는 관광도 포함돼 있다”고 말함.
- 이처럼 중국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북한과 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북한 관광 절차가 간소화 되는데다 무비자로 하루 일정으로 단동에서 출발해 신의주 일대를 둘러보는 변경관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함.
- 또한 “베이징에서 출발한 열차가 단동을 거쳐 평양까지 정기운행하고 단동에서 열차 편을 이용하는 게 베이징이나 선양에서 항공기 편으로 평양에 가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여기에도 “중국의 단동 변방수비대도 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차를 타고 가면서 북한 지역들을 볼 수 있는 점도 단동을 통해 북한관광을 하는 중국인들이 많은 이유”라고 말함.
- 올 들어서도 중국 단동을 거쳐 북한을 찾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늘어나 지난 5월1일부터 이어졌던 노동절 연휴를 맞아 지난 달 말부터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룡정(용정)에서 북한의 칠보산을 다녀오는 관광코스가 신설돼 지난 달 30일 룡정시에서 이 관광코스 선발대 출정행사가 열렸다고 중국 ‘연변일보’ 등이 전함.

- 이 관광코스는 룡징에서 싰허 통상구를 거쳐 북한의 칠보산을 둘러보는 코스로 변경관광으로 분류돼 중국인들은 비자 없이 통행증 발급만으로 여행할 수 있음.
-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역을 둘러보는 3국 무비자 관광도 지난 달 말 시작돼 중국 정부가 지난 해 4월 중국인들의 북한관광을 허용한 이후 북-중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중국 관광정책 부서인 국가여유국은 지난 해 3월 동북지구 관광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지린성 바이산과 창바이(장백)현, 북한 해산을 잇는 관광코스과 연지(연길), 훈춘, 광찬, 북한 나진과 청진을 둘러보는 관광 코스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힘.
- 또한 중국과 북한이 최근 진행 중인 두만강 유역 접경지역의 노후 철도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투먼(도문)에서 함경북도 남양을 거쳐 청진과 칠보산을 둘러보는 관광철도가 운행될 계획이라고 말함.
- 훈춘에서 나진을 거쳐 평양과 판문점을 둘러보는 장거리 북한관광 노선 개통도 추진하고 있으며,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지방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북한 관광노선 다각화를 추진해 앞으로 북-중 관광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됨.

(자료출처 : 2011-05-10 노컷뉴스)

35. 남북교역 중단 후 北인력 中에 대거 유입 [5. 11]

■ 단둥에만 北봉제공 1천여 명 추정... 인력난에 中업체들 선호

-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교역 중단 이후 북한의 봉제공들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음.
- 11일 단둥(丹東)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의류공장이 밀집해 있는 압록강 하류 동강(東港) 일대에 파견돼 일하는 북한의 봉제공이 1천여 명에 이르는

- 것으로 추정됨.
- 한 소식통은 “예전에 400~500명에 불과했으나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한국 의류업체들의 위탁가공이 끊기면서 1년여 만에 배가량 급증했다”며 “북한 봉제공들은 외부와 전면 차단된 채 공장 내에서만 머물며 일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공장마다 수십 명씩 고용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공장은 200~300명도 거느리고 있다”고 전함.
 - 이들에게는 평균 1천200-1천300 위안(20만~21만5천 원)의 월급이 책정됐으나 임금은 전액 북한 노무송출회사에 지급되고 있음. 이 가운데 북한 봉제공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400~500 위안(6만6천~8만3천 원)에 불과하지만 북한 봉제공들 사이에 중국에 나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짐.
 - 단동의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중국 근로자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이직도 잦다”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국 의류공장들이 북한 봉제공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최근 급등한 중국 인건비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도 매력이지만 한국 업체들과 오랫동안 교역하면서 수준 높은 기술을 갖췄고 밤샘근무까지 군소리 없이 해내 효율성이 높다”고 덧붙임.
 - 최근에는 중국의 의류업체에 북한 봉제공들의 고용을 알선하는 중개업자들까지 등장함.
 -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투먼(圖們) 의류업체들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1천600여 명의 북한 봉제공들을 고용하겠다고 중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함.
 - 또 지난 1월에는 이기범 선양주재 북한총영사가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시를 방문, 2천여 명의 여성 근로자 고용을 요청하는 등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북한 근로자의 중국 송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자료출처 : 2011-05-11 연합뉴스)

36. 北 ‘이 대통령 베를린 제안’ 거부 [5. 11]

■ “대화 앉으려는 도전적 망발” 맹비난

■ 조평통 명의… ‘천안함 사과’도 일축

- 국제사회에 비핵화 합의를 할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내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초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에 대해 북한이 ‘도전적 망발’이라고 비난함. 이 대통령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임.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이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비핵화 요구에 대해 “그 누구의 핵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가소로운 망동”이라고 밝힘. 또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 요구에 대해선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엿서려는 흥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함.
- 조평통은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전쟁 전초기지, 핵화약고로 만들어놓고 그 위에서 그 무슨 핵수뇌자회의 개최요 뭐요 하고 희뻘게 돌아치는 것도 가관”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 그는 “역도가 끝까지 대결로 나가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입장을 심중히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음. 허황한 미련과 망상에 빠져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자와 마주 앉아 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밝힘. 이는 북한이 연초부터 이어온 대화공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 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초대’라는 제안을 했는데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억지로 결부시키는 논법에는 불순한 기도가 엿보인다”고 폄하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전혀 개선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되받아치면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변화를 오히려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함.
- 북한이 지난달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일행을 통해 남측에 전달한 김

위원장의 대화 메시지를 이명박 정부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이어 이 대통령이 베를린 발언을 통해 발신한 대화 메시지를 북한이 하루 만에 비난 하면서 남북 대화 분위기는 이제 물 건너가는 모습임.

(자료출처 : 2011-05-11 경향신문)

37. 중, 10개월만에 금강산 관광 재개 [5. 11]

■ 동방조보' 보도...7월 1일 관광단 첫 출발

■ 현대가 독점권 가진 내금강 쪽은 포함 안 돼

- 천안함 사건 이후 10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중국인들의 북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됨.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 첫 중국인 관광단이 오는 7월1일 북한으로 출발한다고 여행상품을 내놓은 상하이 진장여행사를 인용해 상하이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인 <동방조보>가 11일 보도함.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의 여행담당 국가기관인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내 여행사들에 금강산 관광상품을 팔지 말라고 지시해 중국인들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
- 7월1일부터 다시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단은 고려항공 전세기로 곧바로 평양에 도착하며, 평양-금강산-개성 코스와 평양-묘향산-개성 코스 등 2가지 여행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비용은 각각 6260위안(약 103만원)과 5999위안(약 99만원)이며, 올 11월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출발할 예정임.
- 상하이 진장여행사 한국부의 세젠샤오 경리는 <동방조보>에 “이전에 금강산 관광 지역은 대부분 한국 관광객에 개방되고 중국 관광객은 금강산에 가도 대부분 바깥쪽만 볼 수 있었다”며 이번에 중국 여행객들에게 처음으로 ‘깊숙한 금강산 코스’가 개방된다고 말함. 진장여행사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전에 한국인들이 가던 곳을 다 갈 수 있다”고 밝힘.
- 하지만 <한겨레>가 입수한 이 여행사의 평양-금강산-개성 관광 일정에서는,

4박5일의 관광 일정 중 3일째 오전에 원산에서 금강산으로 이동해 '구룡폭포 등산코스'를 여행한 뒤 평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돼 있음. 구룡폭포 쪽은 천안함 사건 여파로 중국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이전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았던 곳임. 관광 일정으로만 보면 북한이 내금강 등 새로운 코스를 개방하지는 않는 셈임.

- 이와 관련해 북한이 지난달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하고 '조선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만들어 독자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에 재개되는 중국의 금강산 관광이 현대그룹의 독점권을 다른 중국 기업 등에 위임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옴.
- 현대아산 고위 관계자는 "일정을 보니 잠깐 시간을 내서 금강산을 들렀다 오는 정도이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자기들이 운영하거나 3자에 위임하겠다는 지난달의 담화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조처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함.

(자료출처 : 2011-05-11 한겨레)

38. 다국적 기업, 북한 투자 방문 잇따라 [5. 16]

■ "최근 개방에 나서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투자 가능성 타진"

- 최근 들어 북한에 투자를 위해 중국은 물론 외국의 다국적 기업 대표단들이 잇따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지난 3월부터 북한의 외국인 투자회사의 주선으로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베이징과 심양, 연길 등을 통해 한 달에 3~4차례씩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북한을 방문한 투자자들은 평양에서 경제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 등을 설명듣고 외국인 투자회사의 주선으로 신의주와 나진, 청진, 원산 등 북한이 최근 개방에 나서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들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여러지역에서 방문해 북한 지역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북한에 기업 설립은 물론 SOC 투자에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며, “전력난 해소를 위한 화력발전소 건설문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소개함.
- 외국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 사례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
- 북한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가 나선특구에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 월간지 '민족21'은 5월호에서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 2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영 조선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중국 국유기업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商地冠群投資有限公司·이하 상지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이러한 투자 규모는 지금까지 공개된 중국 측의 대북 투자 가운데 최고액수로, 지난해 12월 20일 베이징에서 북 조선투자개발연합체와 10개 항의 투자 의향서(양해각서)를 체결한지 3개월만에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함.
- 연변의 한 기업인도 “최근 승리화학공장 현대화사업을 중국기업이 투자해 진행하기로 서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선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라고 말함.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훈춘과 북한 나선에 이르는 도로 보수공사가 5월 중에 착공돼 두만강 유역과 나선특구 지역의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또, 미국의 소리방송은 5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은 이르면 이달 30일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만강 부근 국경도시인 훈춘 시의 취안허와 맞닿아 있는 북한 나선에 이르는 도로 보수공사 착공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함.

- 이번에 착공하는 도로는 중국 연변중국동포자치주 훈춘시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원정리와 나선을 잇는 총 53km로 다음 달부터 중국 측 근로자 500여명을 투입돼 본격 공사에 나서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유럽의 기업인들이 평양 봄철상품전람회에 참가와 대북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가 밝힘.
-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 'GPI 컨설턴스'의 폴 치아 대표는 이달 5일 "유럽의 섬유나 광업 등 업종별로 특화된 투자단들이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평양 봄철상품전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함.
- 한편, 최근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를 위해 설립된 '국가개발은행'과 '조선합영투자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지난 2010년 1월에 설립한 '국가개발은행'은 외자 유치를 위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사업 종목 중 하나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이사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중국 동포인 박철수 총재와 당 내각과 군 간부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조직돼 있음.
- 북한의 최고의결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직접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을 승인해 사실상 북한 투자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 조선합영투자위원회는 지난해 7월 8일 북한 내각 전원회의에서 비준·결성되었으며, 외자 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북한의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임.
- 합영투자위는 2010년 7월 합영투자지도국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30년간 스위스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초 귀임한 리수영 전 제네바 북 대표부 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음.

(자료출처 : 2011-05-16 노컷뉴스)

39. <김정일訪中> 전문가 “북중 경제협력 논의”(종합) [5. 20]

- 9개월 만에 이뤄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목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중 경제협력 논의를 첫손에 꼽았음.
- 전문가들은 또 김 위원장이 식량난 돌파를 위해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6자회담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하려고 전격 방중했을 가능성도 지적함.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중간 경제협력 및 6자회담 재개, 앞으로 남북대화 및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고 중국의 생각을 듣기 위해 또다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함경도 지역을 현지지도 하다가 중국 투먼으로 갔다는 점에서 중국의 나선 특구 투자에 대한 현지시찰의 성격도 있는 것 같음. 또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중국이 아직 대규모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임.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김 위원장이 방중했었던 작년 8월 이후 진행된 북중 경제협력의 성과가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우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재차 방중했을 수 있음. 아울러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북중 최고위층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6자회담 재개에 북한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압박하는 중국의 입장이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임.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 위원장의 방중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 6자회담 재개에 남한과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그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 위원장이 작년 8월에 이어 9개월 만에 직접 움직인 것은 북중간의 경제협력 때문으로 보임. 중국이 여러 약속에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자 이를 없애기 위해 김 위원장이 나선 것으로 보임. 특히 북한은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에 주려는 ‘선물’을 중국에 먼저 보여주려는 것일 수 있음.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으려면 선 비핵화 조치가 필요한 만큼 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허용 등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임. 이를 통해 북한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가속하면서 미국의 식량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보면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나서 6월부터는 한반도가 본격적인 대화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임.

(자료출처 : 2011-05-20 연합뉴스)

40. “北나선·황금평, 시장원리 산업벨트로 육성” [5. 23]

■ 北中, 나선·황금평 산업벨트 조성 방안 본격 추진

- 북한과 중국은 나선과 황금평을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대북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이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힘.
-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나선과 황금평을 대외교류의 시험지역, 강성대국의 선구지역, 조중 경제협조의 시범지역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짐.
- 나선지대에는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이 집중 육성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나선-선봉-웅상-굴포를 아우르는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나선, 선봉, 웅상항을 핵심으로 하는 육상통로와 해상통로를 구축하는 교통망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또 100만kW 발전능력을 조성키로 하고 풍력발전, 태양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동통신망도 구축될 것으로 보임.

- 이달 말 착공식이 열릴 것으로 알려진 황금평지대에는 지식 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지역에는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부두 건설, 황금평과 중국 단둥신구 간 2개의 출입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선경제무역지대는 470km², 황금평 경제지대는 16km²로 설정된 것으로 전해짐.
- 이들 지역은 수출입시 관세 면제,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송금, 소득세 및 토지이용 특혜, 투자자산 등의 자유로운 양도·상속, 시장원칙에 따른 파산 등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될 전망이다.

(자료출처 : 2011-05-23 노컷뉴스)

41. 캠프스키 그룹, 北 원산에 공항·호텔 착공 [5. 23]

■ “금강산 북쪽지역은 북한 측이 관광객 유치 가능성”

- 세계적인 호텔 리조트 그룹인 캠프스키(Kempinski)가 금강산과 원산휴양지 개발을 위해 원산공항과 호텔 건설에 이미 착공한 것으로 알려짐.
- 통일뉴스는 23일 중국의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측 관계자가 캠프스키 그룹의 금강산특구 진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최근 원산공항과 호텔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함.
- 캠프스키 그룹은 원산공항을 현대화하고 호텔을 지어 일대를 휴양지로 개발하고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도로를 보완해 외국 관광객들이 직항기 편으로 원산공항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캠프스키 그룹이 북한에 진출하면 금강산 북쪽지역은 북한 측이 관광객은 유치하고 남쪽지역은 현대아산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짐.
- 월간 '민족21'은 지난 달 25일 일본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측의 조선 합영투자위원회와 캠프스키그룹이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에 합의해 원산공항을 현대화하고 금강산특구 호텔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전함.
- 세계적인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프스키'는 1897년에 독일에서 출발한 100년 역사의 호텔 리조트 그룹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20여개국에 최고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음.
- 지난 1992년에 처음 중국에 진출해 현재 중국에는 14개의 캠프스키 호텔과 리조트가 운영중이거나 건설하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130억 유로(16조원)이 에 연간 매출액은 20-30억 유로로 알려짐.

(자료출처 : 2011-05-23 노컷뉴스)

42. 북, 중국의존 더 심해지나 [5. 23]

■ 교역 1년새 32%↑…경협도 강화

■ “중 영향력 강화 남북 모두에 나빠”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켜,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이미 심각한 수준임. 특히 정부가 지난해 5·24 조치를 발표한 이후 남북 교류가 제한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임.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북중교역은 34억6600만달러로 2009년보다 32%나 증가함. 북중 교역액이 3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임.

- 반면, 남북교역액은 14% 늘어난 19억1000만 달러에 그침. 북중 교역액의 절반 수준인 것임. 북한 지하자원도 중국이 독식하다시피하고 있음. 최근 외국자본에 의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 25건 가운데 20건이 중국에서 투자한 것임. 이런 현상은 통계에서도 확인됨. 2009년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광물자원과 관련된 비중은 62.4%에 이르고 있음.
-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신의주 황금평과 나선특구 착공 행사를 이달 말 열기로 하는 등 북중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남북 경협이 팍 막힌 상황에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중국 이외에 달리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임. 특히 황금평과 나선특구의 경우 북한과 동북 3성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형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북중 경제밀착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현상은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남북한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음.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체 기반 훼손, 정치외교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남북 모두 좋을 것이 없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견제 또는 남·북·중 3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함.

(자료출처 : 2011-05-23 한겨레)

43. “5.24조치로 대북 업체 손실 평균 38억원” [5. 24]

-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 제재조치에 따라 대북 경협·교역 업체 1곳당 평균 손실액이 38억7천5백만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됨.
- 김영운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5.24조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경협·교역 업체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104곳이 총 4천3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지난 1월24일 부터 두달간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 154개 기업 중 79.2%가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함.

- 응답 기업의 78.6%는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전했으며 그 중 12.3%는 현재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답함.
- 5.24 조치에 따른 고용인원 감축 정도에 관한 물음에 응답 기업의 34.4%가 직원 20%를 감축했으며 26.7%의 기업은 30~40% 인원을 줄였다고 응답함.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45억8천734만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도 제기됨.
- 김 대표는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부문별로 개성공단 사업 23억2천141만 달러, 남북교역 14억6천734만 달러, 개성·금강산 관광 7억7천550만 달러의 직접적인 손실을 봤다고 주장함.
- 또 간접적으로는 93억8천307만 달러의 생산유발 및 30억9천159만 달러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8만7천224명의 고용 창출 기회를 잃었다고 김 대표는 추산함.
- 이런 내용은 남북간 경제교류협력 중 상업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남북경협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를 가정해 현 상태와 비교해 얻은 결과이.
- 이에 반해 북한의 직접적인 손실은 8억8천384만 달러로 남한의 19.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자료출처 : 2011-05-24 노컷뉴스)

44. 김정일 “6자회담 조기 재개해야”(종합2보) [5. 26]

■ “비핵화 목표 견지”, “남북관계 개선 진정성 있다”

■ 후진타오 방북요청 수락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정세 완화를 희망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며,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밝힘.

- 관영 신화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함.
-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줄곧 진정성(중국어로는 ‘誠意’로 표시)을 갖고 있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은 현재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우 안정된 주변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언급함.
- 이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외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며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함.
- 후 주석은 이어 “중국은 시종 북중우의를 굳게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결코 변치않는 방침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양국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유지·촉진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함.
- 후 주석은 이를 위해 ▲고위층 교류 강화 ▲당·국가 관리 경험 교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확대 ▲문화·교육·체육 교류 심화 ▲국제 및 지역 정세와 중대 문제에 있어서 소통·협조 강화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시함.
- 후 주석은 특히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북한 지도자 동지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말을 덧붙임. 그는 그러나 ‘지도자 동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 후 주석의 제안에 김 위원장은 “북중 양국 인민의 우호관계는 귀중한 것”이라며 “우호의 배턴을 대대로 전해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가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물려준 중요한 유산으로 매우 중

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함.

- 경제 분야와 관련해 후 주석은 북한이 인민 생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김 위원장은 “중국 각지를 방문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고 놀랄 만한 변화들이 나를 감탄하게 한다”고 화답함.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이 다시 한 번 북한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후 주석은 이를 흔쾌히 수락함.
-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별도로 가진 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압록강신대교 건설을 예로 들며 최근 북중 간 경제무역 협력이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협력 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격상하자고 제안함.
- 원 총리는 지방과 기업의 적극성을 더욱 이끌어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높이자고 말함.
- 한편 창춘, 양저우, 난징, 베이징 등지의 공업, 농업, 과학, 상업 시설들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은 정확한 것으로 과학적 발전노선은 생명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 인민들은 이를 통해 고무를 느낀다”고 소회를 밝힘.
- 한편 신화통신이 밝힌 북한 측 수행 명단에는 강석주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김기남·태종수·박도춘·문경덕, 김영일 당 국제부장 등이 들어갔으나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포함돼 있지 않았음.
- 김 위원장은 또한 관례대로 이번 방문에서도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8명을 모두 만났음.
- 이 밖에 중국 측에서는 류치(劉淇) 베이징시 당서기, 귀보숨(郭伯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王浩<水+扌>寧)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다이병귀(戴秉國) 국무위원 등이 김 위원장 행사에 참석함.

-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들여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전함.

(자료출처 : 2011-05-26 연합뉴스)

45. “천안함사건과 남북경협 분리대응해야” [5. 29]

■ 현대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는 대북정책 필요”

-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후 한반도 안정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과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29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합의 결과는 기회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또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려면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사태) 사과가 없으면 출구도 없다’는 식의 ‘출구론적’ 시각이 아닌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입구론적’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해결, 후계구도 안착 등 정치·경제적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함.
- 또 “한·중·일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했을 뿐 아니라 중국을 매개로 남북 정상 간 6자회담 복귀 등의 관심사를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힘.
-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후계체제 지지 촉구,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중 경협의 대폭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관측함.

- 이에 따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개혁·개방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정치·경제적인 대중 의존도 심화와 남북관계 교착 지속 등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임.
-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늘리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경제교육 및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남북경협 위축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임.

(자료출처 : 2011-05-29 연합뉴스)

46. 北 “南정부와 상종 안 해, 동해 군통신선 차단” [5. 30]

■ 국방위 “금강산 통신연락소도 폐쇄”

-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30일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해 군(軍)통신선을 차단하고 금강산 지구 통신연락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 것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공세는 무자비한 공세”라며 이같이 밝힘.
- 성명은 이어 “반공화국 심리전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한 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 대응을 따라 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이 성명은 남한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관련, “제 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다림 전략’에 따라 급변사태를 실컷 기다려 보라는 것”이라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파

괴하고 평화번영의 길에 인위적인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이 이명박 역적패당”이라고 비난함.

(자료출처 : 2011-05-30 연합뉴스)

47. 亞·유럽여행사, 내년 북한 관광객 모집 [6. 1]

- 아시아와 유럽의 북한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각종 여행상품을 내놓고 있음.
- 스웨덴의 북한전문 여행사인 '코리아 콘솔트'(www.koreakonsult.com) 인터넷 판은 1일 "오는 9월1일 이전에 내년도 북한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면 1인당 50유로씩 할인해주겠다는 광고문을 올림.
- 이 여행사는 지난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이 북한 건국 사상 최대 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 방문에 관심 있는 여행객이 많다고 밝힘.
- 중국 베이징 소재 고려여행사(www.koryogroup.com)는 내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2·16) 즈음에 서울(1일)과 평양(6박)을 7박8일(2.14~21) 간 돌아보고 평양시민 수천명이 참여하는 매스게임, 아이스스케이팅쇼, 김정일화 축전 등도 관람할 수 있는 북한여행 상품을 1인당 1천490유로에 팔고 있음.

(자료출처 : 2011-06-01 연합뉴스)

48. 북 "남쪽이 정상회담 제안" 비밀접촉 공개 [6. 1]

■ **지난달 베이징서 김태효 청와대비서관 등 만나**

■ **"천안함 사과해달라 애걸"...정부 "매우 유감"**

- 남한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 비밀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북한이 1일 밝힘.

-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5월9일부터 김천식 통일부 정책실장과 홍창화 국가정보원 국장,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과 비밀접촉을 했다고 공개함. 북한이 공개한 비밀접촉은 청와대가 5월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의 진의가 북한에 전달됐다’며 공개한 대북 접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을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현 정부와는 이제 대화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의사표시로 풀이됨. 북한은 지난 30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와 더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안보 고위공직자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물밑접촉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를 더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밀접촉에서 남북관계 개선 얘기를 하면서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 얼굴을 사격 표적지로 삼는 등 대결정책을 지속하는 남한에 더 기대할 게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함.
- 비밀접촉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태효 비서관은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가 만났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함.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함. 논평은 또 “북한의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함.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접촉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 두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이었지,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함.
-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남쪽이) ‘제발 북측에서 불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불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했다”고 말함. 대변인은 이어 “(남쪽은) 두 사건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면 5월 하순경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열어 합의사항을 선포하고 6월 하순경에는 제1차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은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니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하였다”고 주장함.

- 국방위 대변인은 북쪽이 두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자 “(남쪽이)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 달라.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결속하자.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봉투까지 내놓았다”고 주장함.

(자료출처 : 2011-06-01 한겨레)

49. 정부 “北 진의 왜곡한 일방주장으로 매우 유감”(종합) [6. 1]

■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 공개 유감 표시…“돈 봉투 주장, 황당한 얘기” 일축

- 정부는 1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힘.
-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함.
- 정부는 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임.
- 통일부 당국자는 남한이 세차례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북측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소 등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으로 제안한 바 없다”고 반박함.
-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으로 보지 않는다”며 “현재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현안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라고 강조함.
-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풀려야 남북 간에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했다는 설명임.

- 최우선 과제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북측의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했다는 것임.
- 또 남한이 돈봉투를 건넸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이 당국자는 “황당한 얘기”라며 “당연히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함.
- 남북 비밀접촉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 남북한이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남북 간 진실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출처 : 2011-06-01 노컷뉴스)

50. 北, 현대 독점권 제한하는 '금강산특구법' 제정 [6. 2]

■ 금강산 지구 통한 외화벌이 독자적으로 나서, 금강산관광 재개 압박

- 현대그룹이 갖고 있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제한하고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북한에서 제정됨.
- 조선중앙통신은 2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함.
- 북한은 금강산특구법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지난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한 북한이 이번에 후속조치를 내놓았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이 금강산 지구를 통한 외화벌이에 독자적으로 나서면서 남측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금강산특구법에서 “국가(북한)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자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특혜관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 금강산특구법에 따르면 특구에서 관광은 외국인이 하고 북한 주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음.
- 또 투자자들은 숙박과 식당, 상점은 물론 카지노와 골프장, 나이트클럽 등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구에서 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 금강산특구 관리는 중앙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지도 아래 신설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가 맡음.

(자료출처 : 2011-06-02 노컷뉴스)

51. 北 고려항공 “주 1회 쿠웨이트 취항예정” [6. 4]

■ “쿠웨이트에 북한 근로자 약 3천5백 명 체류”

- 북한의 고려항공이 쿠웨이트에 1주일에 한 번 취항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고려항공이 10번째 국제 정기노선인 평양과 쿠웨이트 노선을 1주일에 한번씩 취항하게 된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함.
-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고려항공의 비공식 페이스북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수요일 오전 1시10분에 쿠웨이트 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전함.
- 또, “수요일 오후 2시에 쿠웨이트를 떠나 다음 날 새벽 5시에 평양에 도착하는 일정”이라고 소개함.
- 그러나, 고려항공이나 쿠웨이트 시티 국제공항 측에서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음.

- 쿠웨이트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고려항공이 한 달에 한 번 취항하는 것은 알고 있고, 2주일에 한 번 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매주 취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함.
- 고려항공이 쿠웨이트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것은 쿠웨이트에는 중동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약 3천5백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현재 고려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지역은 전세계 20개 도시이며, 이 가운데 9개 도시는 정기노선이고 나머지 11개 도시는 부정기 노선으로 알려짐.
- 정기 노선 가운데는 중국 베이징이 주 5회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선양 3회, 상하이 2회, 다롄 1회 등으로 나타남.
-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주 2회, 모스크바와 하바로프스키가 각각 1회씩 운항하고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를 각각 일주일에 한 번씩 오가고 있음.
- 유럽의 경우, 고려항공이 보유한 항공기들의 안전성 문제로 러시아제 새 항공기인 TU-204 2대를 제외한 다른 고려항공 항공기에 대해 유럽 취항을 금지하고 있음.

(자료출처 : 2011-06-04 연합뉴스)

52. 北, 태권도시범단 순회공연차 미국 방문 [6. 4]

-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시범단이 4일 평양을 떠나 미국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시범단의 미국방문 목적이나 일정을 밝히지 않았음.
-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배능만 단장을 포함해 17명으로 이뤄진 북한 태권도시범단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보스턴과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시범공연을 벌인다고 전함.

- 태권도시범단은 2007년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해 미국 중·서부의 5개 도시에서 다양한 격파와 호신술 등을 선보임.

(자료출처 : 2011-06-04 노컷뉴스)

53. [뉴스 파일]중국인 ‘차 몰고 나선여행’ 9일 시작 [6. 6]

-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9일부터 중국인이 개인 승용차를 타고 북한 나선지구를 3일간 돌아보는 여행을 시작한다고 4일 보도함. 이 여행상품은 중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을 잇는 개발) 계획에 따라 기획됨. 중국청년여행사가 내놓은 이 여행상품의 첫 출발 차량대수는 30대 이내임.
- 1인당 여행경비는 1450위안(약 24만 원)으로 숙식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됐다. 실제 신청자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지린 성 중국청년여행사 장하오(江浩) 총경리는 “성 정부의 창지투 여행개발 전략에 따라 개발된 상품”이라고 설명함.

(자료출처 : 2011-06-06 동아일보)

54. 킹 특사 “北과 이산가족 상봉 논의했다” [6. 8]

■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추진해야”

-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킹 특사가 북한과 한 논의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했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국무부 고위관리는 “킹 특사가 사상 처음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특사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에게 인권 개선을 촉구했으며 이산가족과 관련한 문제도 포함됐다”고 전함.
- 이 관리는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도록 미국 정

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킹 특사의 주요 업무에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포함된다”고 덧붙임.

- 미국 의회의 이산가족상봉위원회 대표인 마크 커크 상원 의원이 이번 주 미국 적십자사와 만나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 적십자사와 직접 협상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그레그 스칼라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매개로 북한의 인권 논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스칼라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대화하려는 북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함.

(자료출처 : 2011-06-08 노컷뉴스)

55. 북·중 합작개발 황금평 대규모 착공식 [6. 8]

■ 北 장성택·리수영, 中 천더밍 주관

■ 북한 주민 등 1천여 명 참석…대형 애드벌룬 띄워 분위기 고조

- 북한과 중국이 합작 개발하는 압록강의 섬 황금평이 7일 대규모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감.
-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황금평·나선특구 합작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6개월 만임.
- 이날 이른 아침부터 중국의 공안들이 배치돼 행사장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 열린 착공식은 철조망을 사이에 둔 황금평의 북·중 중간지대에서 열려 40분간 계속됨.
- 착공식에는 북한에서 북·중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

- 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과 리수영 합영투자위원장이, 중국에서는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참석함.
- 또 양국 관료와 초청인사, 단둥과 황금평 현지 주민, 공사 인부 등 총 1천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림.
 - 착공식장 곳곳에 '조중 친선', '공동 개발'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애드벌룬 수십 개가 뜨고 착공식 2시간여 전부터 군악대 연주와 북한의 노래 '휘파람' 등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고조시킴.
 - 착공식은 축포를 터뜨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수백 마리의 비둘기를 날리면서 오전 11시 10분께 막을 내림.
 - 북·중은 이번에 착공식과 함께 황금평 임대 조건 등을 명시한 합작개발 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짐.
 - 양국은 이날 행사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으로 명명, 황금평에 이어 위화도에 대한 공동 개발에도 나설 것임을 내비침.
 - 양측은 애초 지난달 28일 착공식을 하기로 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취소, 개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됨.
 - 이날 착공식을 대대적으로 연 것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합작개발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대내외 투자자들을 끌어들려는 포석으로 보임.
 - 이에 앞서 북한의 장 부장과 리 위원장은 하루 전인 7일 오후 신의주에서 차량으로 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 크라운 호텔에 투숙했고 천 부장도 이날 항공기편으로 베이징에서 단둥에 도착, 영빈관에 머물렀음.
 - 이날 저녁 크라운 호텔에서 중국 측이 주재한 환영 만찬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황금평 합작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2002년 위화도와 황금평을 포함한 신의주 일대를 경제특구로 지정, 50년간 입법·사법·행정 자치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개발을 추진했으나 초대 특구 행정장관인 양빈(楊斌)이 중국 당국에 구속되면서 무산됨.
- 2006년에도 압록강의 섬 위화도와 비단섬을 연계한 신의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됐으나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음.

(자료출처 : 2011-06-08 연합뉴스)

56. 北 아리랑공연 8월1일 개막… 관광객 모집 한창 [6. 9]

■ “내년에 대규모 공연을 위해 올해 공연은 축소”

- 평양에서 오는 8월1일 개막되는 아리랑공연을 앞두고 외국의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참가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아시아태평양’은 모두 18개의 아리랑공연 관련 상품을 출시했고, 영국의 ‘루핀여행사’는 4종류의 북한 관광 상품을 대상으로 관광객 신청을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함.
- 스웨덴의 여행업체 ‘코리아콘솔트’는 모두 10개 상품을 내놓고 공연 개막일인 8월1일에 맞춰 7월26일 올해 첫 아리랑공연 관광객이 출발한다고 밝힘.
- 또 중국에 있는 ‘고려여행사’도 10여개의 아리랑공연 관련 상품을 내놓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여파로 현재까지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겠다는 여행객이 지난해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고 말함.
- 그러나 영국 루핀여행사의 딜런 해리스 대표는 “아리랑공연 관람객이 현재까지 24명이 신청했다며 예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한편, 북한 당국은 올해 아리랑공연을 축소해 과거 일주일에 6차례에서 4차례로 줄고, 기간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던 것을 9월9일까지 줄인다고 밝힘.
- 이는 북한 당국이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한 내년에 과거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아리랑공연을 위해 출연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일부 여행사들은 내년도 북한관광 상품을 미리 출시해 놓고, 조기 신청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자료출처 : 2011-06-09 노컷뉴스)

57. 北 “남북대화 논의할 여지없어” [6. 9]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 간의 대화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 노동신문은 일반적인 대남·대외정책에 관한 입장 표명을 대부분 논평원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만 주요 사안에 한해선 드물게 '논평원'의 글이라고 밝힘.
- 이 신문은 이날 '6·15의 도도한 흐름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패당이 감히 최고위급 대화까지 우롱한 오늘, 이제 북남 사이에 무슨 대화를 더 논의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반문함.
- 앞서 지난달 30일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와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대변인 문답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비밀접촉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우리는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논평원의 글은 “북남대화가 시작돼 40년, 쌍방 사이에 공식, 비공식 대화와 비밀접촉이 수많이 이뤄지고 특사도 여러차례 오고갔지만 이명박 패당처럼 불순한 흥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존엄과 성의를 모독하며 모략과 대결책동에 광분한 반통일 집단은 없다”고 비난함.

-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 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특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남관계 파탄책동의 최절정”이라고 주장함.
- 이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은 역적패당 따위가 궤방을 논다고 그 의의와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늘의 현실은 6·15의 전취물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교훈과 6·15의 위업을 기어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각오를 몇배나 더해주고 있다”고 덧붙임.

(자료출처 : 2011-06-09 노컷뉴스)

58. “훈춘-나선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 열려”(종합) [6. 10]

■ 소식통들 “북·중 인사 200여명 참석…호텔서 거행”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북한 나진항 구간 도로 보수공사 등의 착공식이 9일 나선에서 열렸다고 행사에 참석했던 연변의 소식통들이 전함.
- 소식통들은 “착공식은 북한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중국의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주관한 가운데 나선의 한 호텔에서 열렸으며 북·중 인사 2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고 전함.
- 소식통들은 “참석이 거론됐던 왕치산 중국 부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 이들은 “행사는 점심을 겸해 2시간 가까이 계속됐으며 훈춘-나진항 도로보수 공사와 중국이 투자한 시멘트공장 등의 착공식이 함께 열렸다”며 “그러나 8일 대규모 인원이 동원됐던 황금평처럼 공사 현장에서 의식이 치러진 건 아니다”라고 말함.
- 이에 앞서 북한의 장 부장과 중국의 천 부장은 하루 전인 8일 오전 황금평

개발 착공식을 하고 오후 특별기편으로 옌지(延吉)에 도착, 하루를 묵은 뒤 9일 이른 아침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를 통해 나선으로 넘어감.

- 이들이 북한으로 향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취안허 통상구에서는 착공식 축하공연도 펼쳐짐.
- 중국은 2008년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훈춘-나진 간 도로 정비를 약속했으며 북·중 양측은 지난해 12월 황금평과 나선특구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중국은 두만강 유역 경제벨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고 훈춘-나진을 연결고리로 삼아 나선특구도 북한과 공동개발, 이 일대를 국제적인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임.
- 훈춘-나진 구간은 53km에 불과하지만 비포장인데다 굴곡이 심해 물자 대량 운송의 걸림돌로 지적돼왔음. 중국은 올 연말까지 이 구간 도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나진항 뱃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임.
- 황금평이 착공식을 한 데 이어 훈춘-나진 도로 보수공사도 본격화되면서 황금평과 나선특구를 큰 축으로 하는 북·중 경협 벨트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8일과 9일 각각 황금평과 나선특구 공동개발 관련 착공식이 열렸다고 확인함.

(자료출처 : 2011-06-10 연합뉴스)

59. 中, 나진항 통해 '150년 숙원 동해길' 뚫다 [6. 10]

■ 북·중 간 접경지대 경제협력이 급진전되고 있다.

- 9일 북한 나선특구에서 중국 지린(吉林) 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3km 구간의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이 열렸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이 통신은 7일부터 9일까지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장성택 북한 행정부장의 주재로 양국이 '나선경제 무역구와 황금평 경제구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함.

- 도로가 정비되면 중국 동북부의 중점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발 계획'은 나진항을 통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인들이 자가용을 몰고 국경을 넘어 나선특구를 관광하는 관광단도 처음으로 9일 지린 성 창춘 시를 출발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망이 전함.

■ 숙원인 중국의 동해출항권

- 중국은 청나라 말기 서양 제국주의의 침탈로 어수선한 시기에 러시아의 제안에 따라 1860년 '베이징(北京) 조약'을 체결해 연해주를 넘겨줘 동북에서 동해로 나가는 바닷길이 막힘.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을 통해 속초와 일본 니가타(新潟) 등과 항로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해 출항권'은 150여 년에 걸친 숙원으로 남아 있음. 훈춘의 동단 광촨(防川)에서 동해까지는 15km에 불과함.
- 나진항이나 청진항은 물류 거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도 커 동북지방과 중국 중남부, 발달한 연해지방,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등으로 연결되는 물류 대동맥이 될 수 있음. 라오닝(遼寧) 성의 다롄(大連) 항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철로를 이용한 물자 수송은 심각한 체중을 빚고 있음. 중국이 훈춘~나선 도로 포장 등 보수비용 전액을 부담하면서 적극 나선 것도 이 같은 다목적 포석에 따른 것임. 중국은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나진항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구상임.
- 중국은 도로 정비가 끝나면 석탄 등 연간 100만 t의 두만강 유역 물자를 나진항을 통해 동부 연안으로 운송할 계획이며 해마다 6000만 위안(약 102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 강성대국의 기초 목표

- 북한이 마련한 '조-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은 내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나선에 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의 공동개발 및 건설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철

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봉사업), 현대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러시아도 나선특구 활성화 등을 통해 동북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 연해주 개발, 나아가 극동아시아 개발에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과거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지선이 한반도를 종단해 일본열도까지 가는 구상도 여러 차례 나왔음.
- ‘장기적으로 옌벤과 북한 나선 청진 칠보산 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일본 니가타와 삿포로(札幌), 남측의 속초 부산을 잇는 관광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구상도 있음. 하지만 한반도 긴장과 동북지방의 경험미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진전이 없었음.
- 이처럼 물류동맥 확보를 통한 나선특구 활성화는 황금평특구와 달리 북-중 관계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주변국에도 전략적 의미가 커 주목됨.

(자료출처 : 2011-06-10 동아일보)

60. 中신화, 북한관광 상세 소개 눈길 [6. 10]

■ 매년 중국인 1만~3만 명 북한 관광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중국인의 북한 관광 경험담을 상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음.
- 신화통신은 지난 9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출발해 훈춘시와 북한의 국경인 취안허(圈河) 통상구를 통과해 북한의 나선 특구로 들어가는 관광상품이 처음 출시된 것을 계기로 관광객들의 소감을 중심으로 북한 관광의 실상을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사정이 1960년대 중국을 연상시킬 정도로 낙후돼 있지만 6·25 전쟁을 겪은 노년 세대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해 북한을 찾는 중국인이 꽤 많다고 함.

- 통신은 북한을 찾는 중국인의 연령층은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10년 전 북한 관광이 가능해지면서 매년 1만~3만명의 중국인이 북한을 찾는다고 전함. 유럽 관광객은 연간 1천명, 일본 관광객은 500명 수준임.
- 린자오루(64)라는 이름의 중국인 관광객은 “아내와 손녀를 데리고 북한을 관광했다”며 “가난에 찌든 북한의 실정이 익숙하기도 하면서 낯설지만 향수를 느끼게 한다”고 소개함.
- 린씨는 “북한 여행에 앞서 식료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라면 등의 비상용 식품을 많이 사갔지만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경제사정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았다”고 전함.
- 그는 이어 “평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으며 평양 시내에서 여성 교통경찰관의 교통정리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북한 주민들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소감을 밝힘.
- 그랬지만 대부분의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곳곳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데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고 통신은 전함.
- “항미원조 전쟁(6.25전쟁)에 참여했다”고 본인을 소개한 전평치(79)씨는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 북한을 찾았으며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한 전우의 묘지를 방문했다”고 말함.
- 류위(45)씨는 “중국의 옛날을 상기시켜주는 북한의 사정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힘.
- 통신은 이어 자동차를 직접 몰고 가는 북한 관광상품까지 생겨 앞으로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통신은 지린성청년여행사가 모집한 90여명의 북한 관광단이 9일 오전 지린성 창춘을 출발해 훈춘시, 취안허 통상구를 거쳐 나진특구로 향했다고 소개함.
- 통신은 중국인의 북한관광은 4~6일 일정으로 이뤄지며 비용은 4천위안(66만 6천원) 수준이라고 전함.

(자료출처 : 2011-06-10 연합뉴스)

61. 북·중 “나선을 세계적 특구로”[6. 10]

-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에 이어 9일 두만강 하류의 나선 경제특구 착공식을 개최함.
- 중국 환구시보는 10일 전날 북한 나선시에서 열린 나선 특구 착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나선 특구는 북·중 경협을 관심 있게 지켜봐온 한국에는 ‘매우 특별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보도함.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선을)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만들겠다”며 “세계 각국, 특히 중국 기업인들의 관심 속에 반드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함. 중국 측 대표인 천더밍 상무부장은 “나선은 충분한 개발가치가 있는 옥토”라며 “새로운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특구 개발 착공을 축하함.
- 나선 특구 개발은 황금평과 마찬가지로 ‘조·중 양대 경제구 개발합작지도 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됨. 개발합작지도위의 북한 측 대표는 장 부위원장이고, 중국 측 대표는 천 부위원장임. 북·중 양국 정부가 나선 특구의 공동개발의 책임을 맡되, 실무 사업은 중국 지린성과 북한 나선특별시가 담당함.
- 북·중 양국은 나선 특구 중점사업으로 나선공단 건설, 나선향구 현대화 사업 등 8대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환구시보 등이 전함. 이 가운데 지난 9일 착공식을 가진 프로젝트는 △훈춘~나선 간 도로(53km) 확장보수 △나선향 중국 화물해외운송기지 건설 △고효율 현대화 농업단지 건설 △창춘 야타이(亞泰)사의 시멘트공장 건설 △중국인 자가용 관광 실시 등 5개 사업임.
- 중국은 화물해외운송기지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나선향을 통해 석탄 2만t을 실은 화물선을 푸젠성 닝보항으로 보냄. 또 중국인 90여명이 승용차를 타고 훈춘시와 나선특별시, 동해안을 둘러보는 자가용 관광을 시작함. 환구시보는 올해 안으로 훈춘~나선 간 도로 보수공사와 나선향의 1차 개조사업이 완성될 것이라고 전함. 중국은 곧 훈춘 다탕(大唐)발전소의 전력을 나선으로 송전하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임.

(자료출처 : 2011-06-10 경향신문)

62. 中 淸春, 나진 이어 자루비노 항로도 개통 [6. 12]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이 북한 나진항에 이어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도 개통함.
- 이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에 가로막혀 동해로 진출할 수 없었던 중국 동북 지역의 해상 운송이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며 훈춘과 부산 간 교역도 확대 될 것으로 보임.
- 12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훈춘에서 자루비노를 거쳐 동해 항로를 통해 부산으로 이어지는 컨테이너 화물 운송 정기 항로가 지난 8일 처음 열림.
- 훈춘-자루비노-부산 항로는 매주 왕복 한 차례씩 컨테이너선이 이용하게 됨.
- 이 항로는 훈춘에서 62km 거리인 자루비노까지 철도와 도로 등 육로로 화물을 운반한 뒤 450해리 떨어진 부산까지 화물선을 이용해 운송하게 된다. 자루비노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은 40여 시간임.
- 3만t급 화물선 정박이 가능한 자루비노항은 훈춘-부산 항로 개통에 이어 중국 동북에서 남방으로 운송되는 물동량도 증가할 것에 대비, 부두 확장을 통해 120만t에 그치고 있는 연간 물동량 처리 능력을 1천만t까지 늘릴 계획임.
- 이미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북한 나진항의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훈춘의 동해 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훈춘은 잇따른 동해 항로 개통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 물류 거점으로 부상함.

(자료출처 : 2011-06-12 연합뉴스)

63. 北 고려항공 평양~상하이 직항노선 7월 개통 [6. 15]

- 북한 평양과 중국 상하이(上海)를 연결하는 직항노선이 다음 달부터 개통됨.

- 중국 인터넷 매체인 항저우망(杭州網)은 상하이 푸둥(浦東)과 평양 공항을 연결하는 북한 고려항공 직항노선이 7월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씩 운항에 들어간다고 14일 보도함.
- 이로써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노선은 베이징(北京)~평양, 선양(瀋陽)~평양의 2개 항공노선과 단둥(丹東)~평양의 열차 노선에 이어 하나가 추가됨.
- 상하이~평양 항공노선의 개설은 경제수준이 높은 창장(長江) 삼각주 지역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은 크게 늘어났으나 북한여행은 불편한 교통편 탓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함.
- 7월1일 처음 운항하는 상하이~평양 노선의 항공권은 모두 매진된 것으로 전해짐. 이번 신설 노선을 이용해 평양과 묘향산, 개성, 금강산 등 유명도시와 관광지를 둘러보는 북한 관광상품의 가격은 4박5일 기준 5399~5999위안(90만~100만원)으로 책정됨.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만 관광을 허가하고 있음.

(자료출처 : 2011-06-15 세계일보)

64. 北 “금강산 부동산 정리… 30일까지 오라” [6. 18]

■ 남측 당사자에 재산협의 통보

■ 현대아산 “사업자들과 논의”

- 북한이 17일 금강산특구 내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현대아산 등 남측 당사자들에게 재산처리 협의를 위해 30일까지 금강산특구에 들어오라고 통보함.
-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폭로하고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한 데 이어 대남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납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발표함.
- 앞서 북한은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하겠다고 알린 데 이어 5월 말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지난 2일 발표함. 이번 조치는 특구법 제정에 이어 실제 행동으로 납측 사업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새로 제정된 특구법에 대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업자들과 협의해 정할 것”이라며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현대아산 관계자는 “오늘 북측으로부터 관련 통지문을 받았다”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협의를 거친 뒤 관계당국이나 금강산에 투자한 다른 기업들과도 상의해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힘. 현대아산은 금강산특구에 있는 해금강호텔과 옥류관식당, 부두, 출입국사무소, 관광도로, 주유소, 발전기, 상수도시설, 통신망 등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음.
- 한편 정부는 북측이 지난 11일 서해 상에서 귀순한 북한 주민 9명의 송환을 요구한 데 대해 이날 오전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측에 전통문을 보냄. 정부는 전통문에서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사 결과 북한 주민 9명은 모두 귀순을 희망하는 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못 박았음.

(자료출처 : 2011-06-18 세계일보)

65. “北 특구, 건잡을 수 없는 변화 부를 수도” [6. 18]

■ 이코노미스트, 경제특구 영향 분석

-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로 북한이 뜻하지 않은 변화의 물결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17일 보도함.
- 이 잡지는 최근호에서 ‘북한 경제 특구:미개발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황금평 및 나선 경제특구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배경과 영향 등을 분석함.
- 이 잡지는 우선 북한이 고 김일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지만 파산상태에 처해 김정일 밑에서 이어져온 실정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2개 경제특구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는 어려움에 빠진 국가에 일대 변화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임.
- 이코노미스트는 황금평·나선 특구는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미비돼 있다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소개함.
- 나선 지구는 당초 1991년 특구로 지정돼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았지만 부실운영과 빈약한 인프라로 인해 좌절됨.
- 홍콩 투자자들이 자금을 댔던 카지노는 중국 관리들이 대거 몰려가 공금을 도박으로 날리는 바람에 폐쇄됨.
- 북한은 2002년 당시 네덜란드 화교 출신으로 중국 제2의 갑부였던 양빈에게 압록강 유역 신의주특구를 개발하도록 했으나 그가 중국에서 탈세 혐의로 체포되면서 무위로 돌아감.
- 특구가 아니더라도 중국 무역업자들과 투자자들은 북한 정권이 2009년 구 화폐를 몰수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음.

- 이 잡지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아무리 빈곤에 빠지더라도 권력 장악력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유화를 추진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함.
- 지난해 개혁 성향의 박봉주 전 내각 총리를 복권시킨 것은 북한이 경제개혁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임.
- 이 잡지는 “북한과 중국이 강조해온 형제애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에서 중국식 자본주의에 탄력이 붙을 경우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함.
- 이는 김정일에게 권력을 지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거꾸로 북한의 경제 실정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외부로부터 견잡을 수 없는 변화의 밑물이 닥칠 수도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끝맺었음.

(자료출처 : 2011-06-18 연합뉴스)

66. 나선특별시, 한반도 동북지역 포트로더데일로 개발...개발계획 단독입수 [6. 22]

- 북한의 함경북도 나선(나진·선봉)특별시에 대규모 해양관광특구가 들어섬. 이 관광특구는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제 휴양도시 형태로 개발됨. 온라인 중앙일보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선특별시 관광종합개발회사 개발계획’ 문건을 입수함. 이달 9일 착공식을 가진 나선특별시의 특정 지구 개발계획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17쪽짜리 이 개발계획서는 중국 지안그룹(吉安集團)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만든 것임. 지난해 7월 누군가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어와 한글을 병행해 작성된 것으로 미뤄 북한 고위층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됨. 이 계획서가 작성된 다음달인 지난해 8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지역을 경유해 중국을 방문함.
- 지안그룹은 이 계획서에서 “나선시의 빠른 발전으로 중국·러시아 등의 관

광객이 증가해 비파도 해안에 특색있는 관광산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조선 유일의 고급스러운 관광여가승지를 제공해 나선시의 인구 유동·물류 등 기타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 이 계획서에 따르면 나선특별시의 비파도 인근 해변 일대 15만㎡(4만5000평)를 해양레저시설과 고급빌라촌 등을 갖춘 복합 해양리조트로 개발한다. 4억 8000만~8억8000만 위안(800억~1500억원)이 투입된다. 개발기간은 3~6년임.
- ◇ 테라스형 빌라촌까지 갖춘 휴양특구=1단계로 3만㎡(9000평) 규모의 해변에 각종 레저를 즐기기 위한 기초시설이 건설됨. 부산 해운대의 절반 규모다. 1단계 공사에는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2000만~5000만 위안(33억~8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8000만 위안(133억원)으로 투자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1단계 공사가 끝나면 관광보트와 요트계류장, 일광욕 벤치, 수상오토바이 시설, 해변 배구장, 휴식시설, 샤워실, 야외 바비큐 시설, 관광용품점 등의 부대시설이 들어섬. 망해여가구역(가로수길·돌의자·정자)과 해안선 보행도로구역 등 주변 환경도 정비됨.
- 2단계는 3만5000㎡(1만 평)에 1억5000만~2억5000만 위안(250억~400억원)을 들여 크루즈선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을 건설함. 일본·러시아·중국 등 외국 관광객을 크루즈선으로 수송하기 위한 시설로 보임. 또 2~3성급 호텔, 위락시설과 헬스장 등을 포함한 종합 여가오락회관, 음식 문화를 알리는 조선특색 미식회관(식당) 등도 마련할 계획임. 1~2단계 공사는 2년 6개월 안에 완료할 계획임.
- 3단계 공사에는 전체 투자비용의 절반 이상이 투입됨. 8만5000㎡(2만6000평) 면적에 2억5000만~5억5000만 위안(400억~900억원)을 쏟아 붓음. 객실 85개와 중소형 회의실·연회장 등을 갖춘 3~4성급 호텔을 세우고 해빈아파트라는 이름의 고급 빌라촌을 조성함. 조감도에는 미국의 ‘베버리힐즈’에 버금가는 테라스형 빌라들이 늘어서 있음. 빌라 주변에는 4차선 넓이의 도로와 녹지가 조성됨.
- ◇ 해양관광지로서의 가치 인정받은 비파도=비파도는 이미 관광지로서 지리

적·환경적 요건을 구비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이곳은 중국 훈춘·러시아 하산과 인접(각각 50km 정도)해 있음. 도로나 철도가 개통(나진항 기준)되면 1~2시간 안에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 국제규모의 숙박 인프라도 마련돼 있는 상태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2000년 문을 연 5성급 엠페러오락호텔이 그것임. 이 호텔은 홍콩자본이 2000년 비파도 일대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지은 것임. 이 호텔에는 카지노를 비롯한 각종 유흥시설이 갖춰져 있고, 비파도와 동해바다를 굽어볼 수 있는 해변에 자리잡고 있어 풍광도 뛰어나.
- 이 일대 경치는 아주 수려함.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청정 해역으로 바다 속이 흰히 들여다보일 정도임. 바다를 따라 수 km의 모래사장이 길게 펼쳐져 있음. 뒤쪽엔 푸르게 우거진 나지막한 산이 솟아 있다. 해양관광과 등산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임. 엠페러호텔을 찾았던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풍광이 입소문을 타면서 '동북의 해상 낙원'으로 불림.
- 북한 주민의 통행은 금지돼 있음. 탈북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접경지대에 철조망을 구축한 것과 달리 나선특별시에는 북한으로 통하는 대부분의 길목에 전기철조망이 쳐져 있음. 개방·개혁의 물결을 차단하기 위해서임. 1991년 이곳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될 때부터 북한 고위급과 외국인의 출입만 허용됨. 나선지역은 지난해 1월 특별시로 승격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선특별시 개발 착공식(이달 9일)이 열린 뒤 "(나선지역 개발을 위해)특구를 더 과감하게 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자료출처 : 2011-06-22 중앙일보)

67. “남북경협 제재 따른 피해 국가 배상의무” [6. 23]

- 남북경협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사업 전면중단 등 남북교류 제재조치에 따른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옴.
- 법무법인 정평의 대표변호사인 심재환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퍼시픽호

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5·24조치의 명분은 국민의 안전이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기업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라며 “행정상 원칙 위반과 남북경협 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심 변호사는 “5·24조치 등 일련의 조치가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담화와 통일부 장관의 발표로 이뤄진 부분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제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함.
- 그는 북측이 금강산관광 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30일까지 특구로 들어오라고 한 것과 관련, “설사 북한이 재산을 모두 몰수해 제3자에 매각하겠다고 통보해도 무조건 북측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박왕자씨 피격 사건은 북한에 잘못이 있었지만 한국의 대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함.
- 심 변호사는 “정부는 경협사업자가 가진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업들의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함.

(자료출처 : 2011-06-23 연합뉴스)

68. '금강산 재산정리' 北위협에 대응책 부심 [6. 24]

■ 투자기업·법률 전문가와 잇따라 대책 협의

■ “30일까지 입회” 요구에 ‘당국 참석’도 검토

-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북측의 ‘정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음.
- “동결, 몰수된 재산의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일까지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북한은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임 . 또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문제는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고 한 북측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임.
- 통일부는 21일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현대아산, 에머슨퍼시픽 등 금강산 지구에 투자한 6개사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함.
- 24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21일 협의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에서부터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가서 북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짐.
- 또 일부 기업측은 “북측이 지난해 남측 자산을 동결·몰수할 때처럼 30여 개 기업이 모두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몇몇 대표기업만 가는 게 어때냐”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는 23일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북측이 ‘재산 정리’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국제법적 구제방안과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당초 북측의 금강산지구 입회 요구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가지 않고 민간 투자기업만 보내는 ‘분리 대응’을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북측이 자산 동결·몰수를 통보할 당시에도 정부는 가지 않고 30여 개 남측 민간 사업자들만 참석했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내에서 “북측과 만나 할 얘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직접 참석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통일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금강산지역에 민간만 보낼지 정부 당국자가 직접 참석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 당국자가 직접 참석할 경우 금강산 관광 문제뿐 아니라 남북 간 대화의 최대 걸림돌이 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화가 오갈지 주목됨. 이 경우에도 북측의 비밀접촉 폭로로 남북관계가 험악해진 상황에서 선부른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북측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지역에 들어오라고 요구한 만큼 27~30일 남측 당사자들이 금강산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관측됨. 일각에서는 방북 날짜가 오는 29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출처 : 2011-06-24 연합뉴스)

69. 새로 열린 北나선특구 육로 관광… 체험객이 전한 ‘北-中경험 1번지’ 실상 [6. 27]

- 최근 중국인 러시아인 등을 상대로 한 북한 관광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북-중 간 접경지대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인들이 북한을 직접 둘러볼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임. 외화벌이에 골몰하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의 반영이겠지만 관광객에게 문을 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동아일보는 최근 나온 북한 관광상품 가운데 대표적 상품인 훈춘(琿春)을 출발해 나선특구를 관광하는 1박 2일 코스를 이달 중순 르포함. 최근 북-중 경협이 핵심으로 떠오른 나선특구를 직접 둘러보는 코스임. 한국인은 북한 여행단 참가가 금지되어 있어 중국 현지 통신원이 참가함.



- 여행 첫날 오전 9시경 관광단은 훈춘에 모임. 각 지역에서 온 10여 명이 버스를 타고 30여 km 떨어진 국경의 취안허(圈河) 세관 검 출입국사무소로 감. 일행이 다 온 것을 확인한 여행사 직원이 대뜸 문방구에서 북한에서 공연하는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줄 공책과 연필 등을 사라고 함. 조금 짙어 들었는데도 50위안(약 8500원)이나 함.

중국 여행사의 1박 2일 나선 선봉 여행 어떻게 진행됐나

첫째 날

- 오전 9시 훈춘 출발
- 국경 수속 후 나선 도착 점심 식사
- 김일성 주석이 묵었던 민가 참관
- 나선항 관광
- 나선극장에서 어린이 공연 관람
-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방문
- 건어물 가공공장 및 기념품 가게 투어
- 호텔 투숙, 저녁 식사

둘째 날

- 나선 선봉 중간 지점 비파도 관광
- 선봉에서 점심
- 훈춘으로 출발
- 훈춘 도착 후 해산

중국 여행사가 여행객들에게 고지하는 주요 유의 사항

- 1 북한에서 위안화 사용 가능, 6000위안 이상 휴대는 금지
- 2 비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 휴대 가능, 필름형 불가
- 3 망원경, 녹음기, 한국산 상표가 새겨진 식품 기념품 인쇄품 휴대 불가
- 4 사진촬영은 허가된 지역에서만
- 5 여행시 이탈 금지, 영업 및 밀수·친지 방문 금지
- 6 북한 근무자들과 정치적 회제 등 민감한 회제 대화 금지

- 중국 쪽 출국 수속을 마치고 지난해 6월 보수 공사를 마친 다리인 '원정리 다리'를 지나 북한 측 입국장에 들어섬. 우리 버스 말고도 다른 여행단이 5, 6팀은 되어 보임. 그래서인지 입국 수속을 하는 데 1시간 넘게 걸림. 기계를 통과하는 체온 검사도 함.
 - 입국 수속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자 북한 나선여행국 산하 나선관광회사 안내원 3명이 동승함. 한 명은 동영상 촬영 전문이었음. 그는 1박 2일간 줄곧 함께 다니며 촬영한 후 CD 한 장에 담아 100위안이나 받고 팔음.
- ▼ 나진항 30분 관광 뒤 北 4~10세 어린이 외화벌이 공연 코스로 ▼
- 관광객들의 행동도 감시하고 장사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한 안내원이 "북조선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즐겁게 지내다 가시고 돌아가면 좋은 말만 많이 하시라"는 등 장황하게 환영사를 함. 우리 관광단은 모두 중국인이어서인지 중국어로만 안내함.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관광객도 종종 있다고 함. 나도 나진의 어느 기념품점에서 러시아인을 몇 명 보았음.
 - 북한에서 파는 지도에 원정리~선봉 33km, 선봉~나진 15km로 되어 있어 1시간이 채 안 걸릴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곧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음. 구불구불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더니 차가 도무지 속도를 내지 못했음. 도로 곳곳에서는 중국 업체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음. 한국의 두산과 현대에서 만든 굴착기도 보였음. 평소에는 1시간 반 걸린다고 하는데 이날은 차량 고장까지 겹쳐 총 48km를 달려 나진에 도착하는 데는 3시간가량이 걸림.
 - 나진의 한 식당에서 '8가지 반찬과 1가지 국'으로 점심을 먹은 후 본격적인 관광에 나섬. 거리를 다니는 것은 아니고 창밖으로 보는 것이 전부임. 길에는 사람도 차도 드물었음. 신호등도, 교통표지판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음. 간혹 보이는 차는 번호판이 '吉'자로 시작함. 중국 지린(吉林) 성 차임. 시민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음. 큰 사거리에는 남자 교통 안내원이 서 있기도 함.
 - 인구가 8만 명이라는 나진은 중국에서는 조그만 어촌도시 정도 될 만큼 작다는 인상이었음. 나진항에는 1~3호 부두가 있지만 2호 부두만 관광객에

- 게 개방돼 있다고 안내원이 말함. 부두 입구에서 소총을 든 여성 경비원이 검문을 함. 항구는 비교적 큰 러시아 선박 한 척과 작은 배 한두 척만이 있을 뿐 썰렁했음.
- 30분도 채 안 돼 차로 돌아와야 했음. 이어 시내 나진극장에서 4~10세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80여 명의 공연을 관람함. 춤과 노래, 전통 악기 연주 등이 1시간가량 계속됨. 여행 경비에 포함돼 있는 관람료는 관광객 1인당 5위안(약 850원)이라고 함. 너무 소액인 것 같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관광객이 몇 명 안 되어도 매번 나와서 공연을 한다고 함. 아이들은 공연이 끝난 후 해맑은 표정으로 같이 사진은 찍어주었지만 묻는 말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음. 관광객 중에 한 중년 여성은 “어린 나이에 외화벌이를 나왔군” 하며 안쓰러워했음.
 - 공연 후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에 들러 꽃을 구경함. 온실에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숙(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의 전신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는데 한 관광객이 이것을 찍다가 5000위안의 벌금을 물고 카메라도 압수됐다고 안내원이 겁을 줌. 실제로 이번 여행에서 가장 엄격히 통제된 것은 사진 촬영이었음. 중국 여행사 가이드와 북한 안내원은 촬영 금지 대상으로 ‘인민군, 주민, 민가주택 그리고 버스 운행 중 주위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 차례 강조함. 적발되면 벌금이 2000~5000위안이라고 함.
 -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중국 측 가이드가 관광객들의 카메라를 모두 모아서 일일이 북한 측 검열에 대비한 점검까지 해주었음. 여러 차례 북한 관광을 안내해서 어떤 사진이 검열에서 삭제되는지를 안다는 것이었음. 실제로 출국 수속을 할 때 북한 요원이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별도 장소에서 검사와 검열을 한 후 돌려줌.
 - 여행 첫날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녁을 먹고 서점을 한 곳 들른 후 숙소로 향함. 숙소는 멀리 바다는 보이지만 시내에서는 20분가량 떨어진 산속이었음. 어둠이 깔린 나진은 가로등도, 상점 간판 불빛도 없었음. 안내원이 내년에는 중국에서 전기를 공급해 준다는 말도 있다고 했음.
 - 이튿날 일정은 비파도 관광 한 곳이 전부였음. 나진과 선봉 중간의 섬 비파도에서 모터보트를 잠깐 태워주며 바닷바람을 쏘이게 하는 것이었음. 멀리

해변에 카지노로 유명한 영황(英皇)호텔이 보였으나 여행 코스에는 없었음.

- 나진에서 원정리로 오는 길은 갈 때와는 다른 길이었지만 역시 구불구불 산길로 3시간여를 덜컹거리고 왔음. 다른 여행객들이 1박 2일에 800위안(약 13만6000원)이면 가볼 만하다고 했지만 오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했음. 길이 포장되고 시간이 단축되면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음.

▼ 내달 평양~상하이 직항로... 훈춘~나진 곧 자가용 여행 ▼

- 북한과 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함께 북한 관광도 다양해지고 있음. 과거 북한 관광은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 소재의 여행사를 통해서만 참가할 수 있었음. 요즘은 단둥이 아닌 중국 각 도시의 여행사도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음. 여행객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평양과 중국 상하이(上海)를 직항으로 잇는 항공 노선이 다음 달 1일 개통됨. 이달 9일에는 지린(吉林) 성 훈춘(琿春)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구간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 참석을 겸한 자가용 여행단이 창춘(長春)에서 처음 출발함. 한두 달 내로 자가용 여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또 장기적으로 훈춘과 나선 특구 및 러시아 연해주를 잇는 3국 변경 무역 상품도 나올 것이라고 중국 여행사 관계자들은 말함.
- 기존에 단둥에서 평양과 개성을 둘러보는 4일짜리 관광코스 외에 금강산 관광을 포함하는 6일짜리 관광 상품도 나올.

(자료출처 : 2011-06-27 동아일보)

70. '나선·황금평 개발안' 개성공단보다 진일보 [6. 27]

- 북한과 중국이 최근 체결한 나선·황금평 공동개발사업은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通)'이 유연해지고 노동시장이 생기는 등 개성공단 공동개발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임.

- 북한과 중국의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계획요강'은 지난 2000년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종합개발 계획'에 비해 투자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항목이 늘고 대규모 개발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양국이 경제적인 목적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안정을 꾀하는 다목적성을 갖고 개발에 임하고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공동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양국 간 협의가 깊고 넓어짐.
- ◇ 유연해진 '3통(通)' = '계획 요강'을 보면 개성공단 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通)'이 한층 유연해진 것이 눈에 띈.
- 우선 양국은 '자유롭고 원활한 망(網)통신을 보장'하기로 하고 고정·이동통신망(유무선 통신망)은 물론 인터넷망과 광섬유망도 구축하기로 했음.
- 개성공단의 경우 애초 유무선통신과 데이터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는 유선통신 이용만 가능한 상태임.
- 개성공단이 설립 당시 교통망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가 이후 당국 간 합의를 통해 4차선 도로를 신설한 반면 나선·황금평 사업에서는 북·중이 항만, 도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교통망 개발을 상세하게 합의함.
- 나선지역에는 나진항을 중심으로 선봉, 응진항을 개발하면서 나진과 원정리·청진·두만강을 잇는 고속도로 등 도로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음. 나진-선봉-남양간 철도 개·보수와 중국 훈춘(琿春)으로 이어지는 철도, 청진 민용비행장 건설도 예정돼 있음.
- 황금평 경제특구에도 현재 건설 중인 신압록강대교 외에도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으로 이어지는 2개의 출입도로를 건설하고 여객·화물 부두를 새로 짓는 등 다수의 건설계획을 세웠음.
- 통관에서도 북한은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설비와 물자에 대한 수입관세와 특구에서 가공·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면제하는 등 특구 개발에 적극적임.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노동시장’도 허용한 北 = ‘계획 요강’에는 북한에 노동시장을 개설해 기업과 노동자가 자유롭게 상호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눈길을 끌.

- 북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국가에서 정해진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당국을 배제하고 중국기업과 북한 주민간에 선택이 이뤄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음. 또 북한은 나선·황금평 지역에 중국인의 출입을 보장하고 중국인과 제3국인의 장기거주도 허용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통행도 대폭 개방함.

- 이처럼 북한이 개방의 폭을 확대한 것은 개성공단 설립 당시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인 한국으로부터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신경을 기울인 것과 달리 중국과는 우호적인 관계인만큼 순조롭게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사업상 편의를 가능한 한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읽힘.

- ◇ 장성택-천더밍 특구개발 ‘하라인’ = 양국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개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황금평·나선 특구 개발 협의를 위한 추진체계를 확실히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

- 북한의 실력자이자 대외경제를 전담하는 장성택과 중국경제를 이끄는 천더밍이 직접 나서 정치적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특구 공동개발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음.

- 개발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현대아산이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기업 승인·등록과 건설허가 등 실무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개성공단과 대비되는 부분임.

- 그러나 북중이 합의한 ‘계획요강’은 개발 의지를 과시한 선언 수준이어서 향후 북중 양국간 합의나 법제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개성공단 개발에 참여했던 LH공사는 “(황금평·나선특구 공동개발안이) 개성공단 때보다 일보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급조된 흔적이 보인다”며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려면 당사자 간에 세부적으로 합의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입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도 “개성공단 때도 개발계획은 잘 짜였지만 실행이 안된 것이 문제였다”며 “법제화, 토지보상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둔 북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많은 부분을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봄.

(자료출처 : 2011-06-27 연합뉴스)

71. '재산정리' 北위협에 민관 29일 금강산 방북 [6. 27]

■ 정부 6명 · 민간사업자 6명…통일부 과장 단장

-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 재산을 정리하겠다고며 남측 당사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들어오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는 29일 정부 관계자와 민간 사업자들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힘.
-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측 인사 6명과 금강산지구에 투자한 현대아산 등 민간기업 관계자 6명 등 총 12명이 방북할 예정임.
-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당국자의 방북은 금강산관광지구 내 재산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어떤 회담 성격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정리해달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등을 파악해 우리 입장도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자료출처 : 2011-06-27 연합뉴스)

72. 북측 금강산 재개 요구…” 거부 땀 임대·재산정리 돌입” [6. 28]

■ “남측 거부 땀 재산정리를 위해 국제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 돌입 예상”

- 북한 측은 금강산지구 내 '재산 정리' 접촉에서 관광재개와 손실보상을 요

구하고 남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물을 북측에 임대해 주고 재산정리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짐.

- 대북 경험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8일 “북측이 오는 30일 남측 사업자 소집에서 종전보다 더욱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며 “북측은 먼저 관광재개를 다시 요구하고 그동안 손실보상과 임대료를 지불해 주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소식통은 “북측은 남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대아산 등 남측의 시설물을 북측에 임대해 주도록 요구하는 한편 재산정리를 위해 국제법에 따라 법적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소식통은 “북측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오는 외화 수입을 올리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자체적으로 중국관광객 등 외국 관광객들을 금강산에 유치하기 위해 판촉활동을 펴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또 “정부와 국내 일부 언론에서 북측의 최근 조치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위협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 북측은 남측의 금강산 관광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관광 사업을 폐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함.
- 대북경험 투자업체의 한 임원도 “오는 30일 북측과의 접촉이 비관적”이라며 “북측은 남측 민간재산에 대해 추가로 몰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이 임원은 북측의 법적 절차 가능성에 대해 “남측 투자기업과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와 투자보장합의서가 존재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는 합의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3국에서 소송중재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함.
-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측이 금강산 관광을 완전단절하기 보다는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관광재개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조 박사는 또 “북측이 금강산 독자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남측의 투자자들에게 대한 정리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봄.

- 북측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에 따라 관광객 1명이 1박2일 코스는 75달러 2박3일은 100달러의 관광비용을 받아 연간 1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짐.
-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2010년 말까지 누적적자 600억 원, 매출손실은 해마다 천억 원 이상으로 모두 3천5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
- 또 금강산에 투자한 170여개 업체와 금강산 관광을 취급하던 전국의 500여개 여행업체도 휴업하거나 도산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강산 관광 중단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월평균 29억 원의 손실로 2010년 10월까지 84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금강산관광 재개 걸림돌은 정경분리 원칙을 훼손한 정부의 정치적 접근으로 진정성이 없고, 회담 기피 등 시간 끌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남북 간 관광교류협력은 상생의 경협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관광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실무회담 할 때”라고 지적함.

(자료출처 : 2011-06-28 노컷뉴스)

73. 금강산 재산 정리 12명 방북 [6. 29]

- 북한이 제기한 금강산지구 내 재산 정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방북함.
- 총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방북단은 오전 9시께 동해선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금강산지구로 들어가 북측 관계자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북측이 이미 밝힌 재산 정리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일방적으로 남측 관계자에게 통보할지, 중단된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될지는 불투명함.

- 방북단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단장인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비롯해 통일부 실무자(3명), 법무부(1명), 문화체육관광부(1명) 관계자 등 6명임.
- 민간 측에서는 현지에 투자한 현대아산(2명), 에머슨퍼시픽(1명), 금강산기업협의회(1명)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1명), 대한적십자사(1명) 관계자 등 6명이 방북함.
- 이들의 방북은 하루 일정이지만 남북 간 금강산관광을 둘러싼 긍정적 협의가 진행된다면 귀환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둘러싼 남북 간 입장이 첨예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추가 조치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 문제가 완전 수렁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7월 발생한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이른바 '3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임.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북측은 지난해 4월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 동결과 올해 들어 현대아산에 대한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정(4월), 관련법 발표(6월2일) 등 에이어 지난 17일 "동결, 몰수된 재산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보함.

(자료출처 : 2011-06-29 매일경제)

74. 금강산 방북단, 북한과 아무런 논의도 못해 (종합) [6. 29]

■ 통일부 당국자 "사업자와 개별협의 하겠다는 통보 해 바로 철수"

- 북한이 금강산을 방문한 민관 방북단에 당국 간 협의를 배제하고 사업자와

- 개별협의를 하겠다는 일방통보를 해와 남북 간에 재산정리와 관련한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못함.
- 통일부 실무자들과 현대아산 관계자 등 12명은 29일 오전 북한의 금강산 지구 내 '재산 정리'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금강산을 방문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명승지개발지도국 실무자들이 나와 당국을 배제한 채 사업자와 개별협의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 민관 방북단이 바로 철수했다”고 설명함.
 - 북한이 사업자와의 개별 협의를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북측은 이날 재산 정리를 위한 추가조치와 관련한 통보도 하지 않아 추후 남북간 금강산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시계제로인 상태임.
 - 정부는 북측의 재산정리 입장에 대해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우리 기업에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앞서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통보한 북한은 금강산 관광특구에 자체적으로 화력발전소와 특급호텔들을 건설하는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짐.
 - 원산과 금강산 사이의 2차선 도로 80km를 확장해 현재 1시간 30분 걸리던 것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공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함.
 - 또 금강산에 단체와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규모 콘도단지도 조성할 것으로 알려짐.

(자료출처 : 2011-06-29 노컷뉴스)

75. 北 '금강산 협의' 무산책임 남측에 전가 [6. 29]

- 북한은 29일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의 재산 정리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무산된 것을 남측 책임으로 돌림.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역시 통일부가 화근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부 것들의 행태로 모처럼 마련되었던 이번 접촉이 무산되게 되었다"며 "남측대표단의 돌격대로 나선 통일부의 사무관이라는 자가 그 무슨 일정 통보를 놓고 처음부터 시비를 걸면서 접촉의 앞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했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 것들은 협의 장소에 갈 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면서 토의 당사자인 민간기업인들과는 일체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며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계속 훼방을 놓다가 결국 이번 접촉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함.
- 이어 "이번 접촉의 목적은 지난해 4월에 취했던 남측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동결, 몰수 조치를 해제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또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은 통일부가 북남대화 파탄의 장본인이며 이런 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사이의 그 어떤 대화와 접촉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힘.
-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방북단은 이날 금강산지구에서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과 만났지만 북측이 민간사업자들과 개별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통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협의 자체가 무산됨.

(자료출처 : 2011-06-29 연합뉴스)

76. 최문순 "금강산관광 우선 재개하자" [6. 30]

■ 현대아산 "작년까지 3천900억 매출손실"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0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

는 측면에서 금강산 관광을 우선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 최 지사는 이날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인 동시에 북한 입장에서 경제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남북관계를 개선·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함.
- 또 “2008년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뒤 지난 34개월 동안 강원도 고성군이 입은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이 986억원에 달한다”며 “고성군의 올해 예산이 2천200억원이 못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손실은 고성군민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실직자와 결손가정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함.
-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2008년 11월 말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건설사업 위축 등으로 현대아산은 매출기반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작년 말까지 3천900억원 가량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함.
- 이어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북경협의 회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교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5·24조치 해제와 함께 남북관계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함.
- 한편 통일부와 현대아산 등으로 구성된 민관 방북단은 전날 금강산을 방문, 북측과 금강산지구 내 재산정리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협의방식을 둘러싼 북측과의 이견으로 협의가 무산됨.

(자료출처 : 2011-06-30 연합뉴스)

77. 북 “임가공업체도 정리하겠다” [6. 30]

■ “대북 임가공업체 176군데 큰 피해 우려”

- 북한이 금강산 남측 재산 정리를 통보한데 이어 임가공업체들에게도 설비

처리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소식통은 30일 “북한 측이 5월 중순 민경련을 북한에서 임가공하는 업체 176군데에 대해 문건을 보내 6월15일 중국 단둥에서 만나 협의 할 것을 통보했으나, 통일부가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접촉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힘.
- 대북 임가공 업체들은 다시 7월10일 이전에 접촉을 위해 현재 통일부에 접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남북경협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김규철 대표는 “금광산 투자업체에 이어 임가공업체도 파산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통일부는 금강산 남측 재산 정리 교훈 삼아 교역 장기 중단 조치에 따른 재산권 보호 위해 전원 접촉 승인하라”고 촉구함.
- 대북임가공업체들은 대부분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로 천안함 사건이후 5.24조치로 임가공이 중단됨.

(자료출처 : 2011-06-30 노컷뉴스)

부 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평양 6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5월 31일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제1조(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제관광특구의 지위와 위치)

국제관광특구는 관광 및 그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관광지구이다.

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제3조(국제특구관광발전원칙)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는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는 금강산을 여러가지 관광목적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4조(투자장려 및 경제활동조건보장원칙)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수 있다.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자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조(재산보호원칙)

국가는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

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조(국제관광특구관리의 담당자)

국제관광특구의 관리는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라고 한다.)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 아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한다.

제7조(국제교류와 협력)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관광기구,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법규적용)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관광 및 관광업, 기타 경제활동은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에 따라 한다.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제9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지위)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다.

제10조(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지도

국제관광특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심의, 승인

대상건설설계문건사본의 접수보관

국제관광특구의 세무관리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11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지위)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관광특구를 관리하는 현지집행기관이다.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제12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작성 및 실행
 관광자원의 조사, 개발, 관리
 관광선전과 관광객모집, 관광조직
 국제관광특구에서의 질서유지, 인신 및 재산보호
 토지, 건물의 임대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토지이용권, 건물, 료전기재의 등록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보장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국제관광특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
 국제관광특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반출입에 대한 협조
 이밖에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제13조(공동협의기구의 조직운영)

국제관광특구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투자가,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공동협의기구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공동협의기구는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 문제들을 협의, 조정한다.

제14조(국제관광특구의 출입관리)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질서, 국제관광특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15조(검사, 검역)

국제관광특구에 출입하는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통행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 사업을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관리)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통신수단의 리용)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우편,전화,팩스,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제18조(관광당사자)

국제관광특구에서의 관광은 외국인이 한다.
공화국공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수 있다.

제19조(관광형식과 방법)

관광은 등산과 유람,해수욕,휴양,체험,오락,체육,치료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관광객은 국제관광특구안에서 자유롭게 관광할수 있다.

제20조(관광환경과 조건보장)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관광객을 위한 봉사)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에서 숙박,식당,상점,카지노,골프,야간구락부,치료,오락 같은 여러가지 관광봉사시설을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할수 있다.

제22조(국제적인 행사진행)

국제관광특구에서는 국제회의와 박람회,전람회,토론회,예술공연,체육경기 같

은 다채로운 행사를 할수 있다.

제23조(교통보장)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과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비행장과 항만, 관광철도, 관광도로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의 교통상편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제24조(기업창설)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여행업,숙박업,식당업,카지노업,골프장업,오락 및 편의시설업같은 관광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제25조(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준수)

국제관광특구의 개발은 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하부구조를 건설하거나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26조(기업창설승인, 등록)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하부구조건설승인)

국제관광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승인은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28조(지사,대리점,출장소의 설립)

국제관광특구에는 지사,대리점,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이 경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돈자리의 개설)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리용할수 있다.

제30조(외화유가증권의 거래)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31조(보험가입)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수 있다.

제32조(버림물의 처리)

기업은 현대적인 정화장,침전지,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관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33조(로력채용)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공화국의 로력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력을 채용할수 있다.

제34조(관광특구에서의 류통화폐)

관광특구에서 류통화폐는 전환성외화로 한다.

전환성외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35조(외화의 반출입과 송금, 재산의 반출)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왔던 재산과 국제관광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36조(세금)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해당 법규에 정해진 세금을 물어야 한다.
비행장,철도,도로,항만,발전소건설 같은 특별장려부문기업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제37조(물자의 반출입)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정해진 금지품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제38조(관세면제 및 부과대상)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해진 규모의 사무용품,생활용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면제대상의 물자를 국제관광특구밖에 팔거나 국가에서 제한하는 물자를 국제관광특구안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39조(인원, 수송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정된 비행장을 통하여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할 경우에는 비행장통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0조(제재)

이 법을 어겨 국제관광특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개인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시키

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공화국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1조(분쟁해결)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로 해결하거나 공화국의 재판절차로 해결한다.(끝)

기고문을 받습니다.

「KTO 북한관광동향」은 남북관광교류사업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을 분석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남북관광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의 신선한 원고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한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 「KTO 북한관광동향」 담당자 앞
☞ 02)729-9645, kntoman@mail.knto.or.kr

KTO 북한관광동향
〈제 5권 제 2호〉

〈통권 제 18호〉

발행일자 2011년 6월 30일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
발행인 이 참
인쇄처 웃고문화사

ISSN 2005-8799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공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본지에서의 출처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